

언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안병희 · 임홍빈 · 권재일

1. 머리말

학문의 연구사적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되살피고, 현재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 전개될 연구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전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사적 방법을 바탕으로, 광복 이후 한국의 인문학 연구의 성과를 회고하고 전망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국어 연구, 구체적으로는 국어 문법 연구를 되돌아 보아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국어형태론 연구(제2장)와 국어통사론 연구(제3장)로 나누어,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황을 분석·반성한 바탕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방향 제시는 지금 까지의 연구 현황을 토대로 이를 극복하는 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문제가 된 쟁점 연구를 중심으로 반성할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비와 관련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총괄연구과제명은 ‘한국 인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며, 본 논문은 그 가운데 제1세부과제이다. 연구책임자 안병희는 이 연구를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였으며, 공동연구원 권재일은 제2장을, 공동연구원 임홍빈은 제3장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 글의 일부는 1997년 11월 2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강연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권재일: ‘국어 형태론 연구의 회고와 전망’(지정토론자: 송철의 교수), 임홍빈: ‘통사론 연구의 반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지정토론자: 남승호 교수).

심의 초점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어떠한 점을 소홀히 했으며,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 왔는가를 반성하는 데에 맞추고자 한다. 문제의 연원이 과거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시대적인 경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1945년 이전의 업적도 언급하기로 한다.

2. 국어 형태론 연구

2.1. 형태론의 지위와 연구 대상

2.1.1. 형태론의 지위 정립

형태론이 국어학에서 어떻게 정립되었으며, 그동안 국어학 안에서 어떠한 지위로 연구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앞으로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길이라고 본다.

학문의 이름은 대체로 그 학문의 연구 대상을 표현한다. 따라서 국어형태론은 ‘국어의 형태 현상’이 바로 연구 대상이 된다. 언어학의 연구 대상을 언어 구조에 따라 분류하면 음운론, 의미론, 문법론이 된다. 그리고 문법론은 다시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뉜다.

국어문법론에서 형태론과 통사론이라는 두 연구 대상의 구분은 1950년대까지는 아직 명시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1950년대의 대표적인 국어학 저서인 이희승(1955)에서는 형태론과 통사론 구분에 대한 기술이 불분명하다. 이희승(1955)에서는 국어학의 연구 분야를 음운론, 어휘론, 문법론으로 기술하면서, 어휘론에서 어의론, 어형론을, 문법론에서 품사론을 기술하였다. 이승녕(1961)에서는 음운편, 조어편, 형태편, 통사편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태편은 굴곡법에 한정되며, 조어법은 어간의 구조를 연구하는, 문법론 안의 독자적인 분야로 정의하였다.

문법론의 연구 대상을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였다. 본격적인 형태론의 연구 대상은 허웅(1963), 안병희(1965가)에 이르러 비로소 정립되었다. 허웅(1963: 169-)에서는 “단어는 하나 또는 둘 더되는 형태소로써 형성되는 것인데, 그 형태소의 결합방법은, 각 언어에 따라서 다른 일정한 방식이 있는 것이다. 형태소의 됨됨이, 그 종류, 그리고 그것이 결합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부문이 형태론이다. 단어가 결합하여 구나 월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단어의 결합방법에 대한 연구가 통사론이다.”라고 하여, 문법론의 연구 대상

을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아울러 형태론과 통사론의 한계를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단어를 최소자립형식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하였다. 안병희(1965가: 111-)에서는 형태소나 적어도 단어 이하인 언어형식을 직접구성요소로 하는 구성을 형태론적 구성이라 하고, 단어와 단어 이상을 직접구성요소로 하는 어구와 같은 구성을 통사론적 구성이라 규정하고, 형태론은 형태론적 구성, 통사론은 통사론적 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기술하였다.

국어형태론에 대한 이러한 기술은 다분히 구조주의 문법, 특히 미국의 기술문법에 입각한 것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 이후 다음과 같이 형태론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 정밀화되었다.

일정한 음성형식과 일정한 의미형식을 갖추고 있는 형식을 언어형식이라 할 때, 최소의 언어형식 단위인 형태소들은 하나 혹은 둘 이상 모여서 더 큰 단위의 언어형식을 이루는데, 이러한 언어형식이 형태론적 구성이고, 형태소가 모여서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이 형태론적 과정이다. 형태론적 구성은 하나 혹은 둘 이상 모여서 더 큰 단위의 언어형식을 이루는데, 이러한 언어형식이 통사론적 구성이다. 형태론적 구성이 모여서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이 통사론적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통사론적 구성이 하나 혹은 둘 이상 모여서 의사전달의 완성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문장이다. 통사론적 구성이 모여서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도 역시 통사론적 과정이다. 즉 형태론적 과정은 형태소가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며, 통사론적 과정은 형태론적 구성이 통사론적 구성을, 궁극적으로 통사론적 구성이 문장을 이루는 과정을 말한다.

형태론과 통사론을 형태론적 과정과 통사론적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문장 안에서 형태론적 과정의 여러 현상들(구성방식과 그 제약, 기능)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형태론이며, 통사론적 과정의 여러 현상들(구성방식과 그 제약, 기능)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통사론이다.

형태론적 과정에 나타나는 결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 어근

나. 어근+어근

다. 어근+접사(파생접사)

라. 어근+접사(굴곡접사)

(예) 뜰

산-돼지

올-벼, 짓-밟-

돼지-가, 벼-를, 밟-았-다

이러한 결합방법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방법은 합성법,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

합하는 방법은 파생법, 어근과 굴곡접사가 결합하는 방법은 굴곡법으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합성법과 파생법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즉 단어의 어간을 다시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 두 결합방법을 묶어서 조어법으로 정의되었다(허웅 1963: 183- 및 안병희 1965가:127-). 결국 형태론의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립되었다.

(2) 형태론의 연구 대상

○ 조어론

- 합성법 어근+어근
- 파생법 어근+파생접사

○ 굴곡론 어근+굴곡접사

국어형태론의 연구는 이와 같이 연구 대상을 규정한 바탕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국어의 형태 현상들이 정밀하고도 체계적으로 규명되기에 이르렀다. 굴곡론에 대한 연구는 허웅(1975 및 1995)에서 체계적인 기술과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조어론에 대한 연구는 송철의(1990/1992), 김창섭(1994), 김계곤(1995)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체계화되었으며, 형태론 전반에 대한 연구는 고영근(1989), 김석득(1991), 김승곤(1996) 등에서 이루어져서, 국어의 형태 연구는 국어학의 다른 어느 연구 못지 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1.2. 형태론의 위기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어형태론 연구를 되돌아 보면 언어 이론의 전개 과정에 따라 형태론의 지위가 불안정하였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래 언어 이론의 변천에 따라 문법론 안에서 형태론과 통사론의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였으며, 형태론 안에서도 굴곡론과 조어론의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음운론과 형태론의 영역, 통사론과 형태론의 관계가 모호해 지기도 하였다. 때로는 형태론 연구가 국어학에서 경시되거나 전적으로 배제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형태론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기술언어학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는 형태론이,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는 통사론이 연구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가 연구의 중심이 되는 현상 못지 않게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분야를 경시하거나 배제하는 현상이다. 변형 생성문법의 초기 이론이 형태론을 경시한 예가 그러한데, 국어 문법에서는 형태론의

비중이 높다는 국어의 특징이 무시된 경우이다. 그간 이러한 연구 경향이 있었음을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 하겠다.

기술문법 이론은 언어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귀납적이고 철저히 객관적인 연구 방법론이다. 그래서 층위적인 연구방법론이 성립되어, 연구 대상을 문법론에만 국한시켜 보면 형태론 연구는 문법 연구의 핵심 분야가 되었지만, 통사론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술문법 이론의 수용은 국어의 형태론의 지위를 확립하고, 그 연구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국어는 주로 문법형태소에 의해 문장의 문법 현상이 실현되기 때문에, 형태소의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형태소의 성격, 형태소의 결합 제약, 형태소의 통사 기능 등을 밝혀 문법 현상 전반을 기술하려 한 기술문법 이론은 국어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어형태론의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이 확립되고, 마침내 국어형태론의 연구가 꽃을 피우려는 시점에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1970년대 이후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수용을 통해서 국어형태론의 지위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미국의 기술문법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기술문법 이론과는 이론적인 배경,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모든 것이 대조적이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목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밝히기 위한 즉, 언어 능력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변형생성문법은 문장구조의 적격성을 설명하고,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려 하였다. 그 결과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통사론 중심의 이론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국어문법론은 통사론 연구를 문법 연구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을 통사론, 의미론, 음운론으로 삼았다. 형태론을 연구할 이론이 변형생성문법 틀 속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형태 현상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자료에 대한 분석, 기술에 지나지 않고, 통사 현상에 대한 연구만이 문법 현상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분명히 형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굴곡 현상인 경우, 이를 통사 현상으로 혼동하여, 형태 현상마저 모두 통사 현상으로 대상을 삼은 연구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문법형태소의 결합 제약을 연구하는 것조차 통사론 이름 아래 두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어 문법론은 곧 국어통사론’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형태론의 연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형생성문법 이론에서 생성형태론이 등장한 후부터 형태론은 주로 조어론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형태론은 문장을 생성하는 통사 규칙의 마지막 단계인 어휘부에 적용되는 몇 가지 규칙, 통사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휘형성규칙과 관련한 대상에 국한하고 있다. 기술문법 이론에서의 형태론은 굴곡론과 조어론에 균형을

두어, 주로 형태론적 구성의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생성형태론은 단어의 생성 과정에 관심의 초점을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생성형태론에 입각한 형태론은 조어론에 비중을 두게 되었으며, 조어론은 단어 생성 과정의 음운 현상에 절대적인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관한 임홍빈(1985: 70-)에서의 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70년대, 특히 그 전반은 국어형태론을 위해서는 아주 불행한 시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 연구에서 형태론이 차지하는 영역이 아주 불확실하여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고 위협하던 시기, 그래서 형태론의 활동무대가 극도로 좁아지고 형태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형태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령 어떤 논의가 ‘그것은 형태론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던,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면 형태론의 소멸위기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3. 위기의 극복

이러한 연구 경향은 결국 초기에 확립되었던 형태론의 연구 대상, 곧 형태론에 대한 확고한 지위가, 외래 언어 이론의 수용 양상에 따라 흔들리게 되어, 형태론의 진정한 연구 대상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태론이 통사론의 일부인 것처럼, 형태론이 조어법의 음운 현상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형태론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형태론에서 굴곡론과 조어론이 균형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문법형태소(굴곡접사)의 기능이 문장의 통사 현상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그 문법형태소의 형태적 성격을 경시할 수는 없다. 형태론 안에서 굴곡론의 지위는 가치가 있다.

현대 학문의 경향은 이웃하는 분야와 상호 관련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보편화하고 있다. 형태 현상은 음운 현상, 통사 현상과 관련하여, 이론바 상관성에 입각하여 연구되어야 그 참 모습을 밝힐 수 있고, 또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더 나아가서 의미론까지를 함께 묶는 통합 이론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형태론의 확고한 지위가 제대로 확보되어야 이웃하는 음운론, 통사론과 상관성 연구와 통합 이론에 의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국어는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착어에 속한다. 명확한 문법적 관념을 가

전 각각의 문법형태소를 계속 침가하여 문법 기능을 실현하는 언어이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유형론의 한 관점인 문법범주 실현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국어는 문법범주 실현에 있어서 형태론의 방법이 통사론의 방법보다 비중이 높은 언어에 속한다. 간단히 다음 문장을 예를 들어 보면,

- (3) 가. John loved Mary.
- 나. Did John love Mary?
- 다.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였다.
- 라.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였느냐?

영어에 있어서 시제법은 '-ed'에 의해(형태론의 방법), 주격, 목적격 등의 격은 문장 구조에 의해(통사론의 방법), 서술법, 의문법 등의 의향법은 역시 문장구조에 의해(통사론의 방법) 실현된다. 국어에 있어서 시제법은 '-였-'에 의해(형태론의 방법), 주격, 목적격 등의 격은 '-가', '-를'에 의해(형태론의 방법), 서술법, 의문법 등의 의향법은 '-다', '-으냐'에 의해(형태론의 방법) 실현된다. 비록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보았지만, 영어는 대체로 통사론의 방법에 의해, 국어는 대체로 형태론의 방법에 의해 문법범주가 실현된다. 이렇게 보면 영어와 같은 언어는 문법범주 실현의 측면에서 보면 통사론에 비중이 더 놓인 언어이며, 국어와 같은 언어는 형태론에 비중이 더 놓인 언어이다.

이와 같은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어 문법 연구에서는 문법형태소를 확인하여 그 형태 특성을 밟히고, 나아가서 이들의 기능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사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즉 영어와 같은 인도-유럽어와는 다른, 이러한 교착어적인 언어구조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형태론적 구성으로의 결합방법과 거기에 따르는 제약 현상들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형태론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2.2. 형태소와 그 분석 한계

2.2.1. 형태소의 개념

어떤 연구든 그 연구는 대상이 되는 기본 단위를 규정하고 분석하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국어형태론의 연구도 대상의 기본 단위를 규정하고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형태론이 단어를 분석하여 구성방식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생성과정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단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형태소를 규정하는 일은 형태론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이다.

국어의 경우 어간과 어미, 어간과 조사를 분석하려는 인식은 이미 차자표기시대에서부터 나타났다(송철의 1997). 차자표기에서 대체로 어간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고(訓借), 어미나 조사 부분은 소리를 빌려 표기하였다(音借). ‘去隱春=간 봄’에서 ‘去’는 동사어간 ‘가-’를, ‘隱’은 어미 ‘-ㄴ’을, ‘봄’은 명사 ‘봄’을 각각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표기는 활용형을 어간과 어미로, 곡용형을 어간과 조사로 분석했음을 보여 준다.

형태론의 기본 단위로서 형태소에 대한 인식은 1950년대 이후 형태론의 지위가 정립되면서 동시에 확립되었다. 허웅(1963), 안병희(1965가)에서 형태소를 규정하고, 형태소의 유형, 변이형태와 실현 조건 등을 명시하였다. 김석득(1962 및 1992), 고영근(1989)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는 형태소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공헌한 바 크다.

형태소의 정의는, 일정한 음성형식과 일정한 의미형식을 갖추고 있는 형식, 즉 언어형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언어형식의 최소의 단위를 형태소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형태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 의거하였다. 첫째, 형태소가 가지는 의미특성에 따라,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형태소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문법형태소로 유형화하였다. 둘째, 발화에서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자립형태소와 그렇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에 반드시 의존해야만 실현이 가능한 의존형태소로 유형화하였다. 셋째, 형태론적 구성 안에서 차지하는 의미적인 비중에 따라, 중심 의미를 가지는 어근형태소와 어근형태소를 의미적으로 도와 주는 접사형태소로 유형화하였다. 접사형태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에 따라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접사(또는 파생접사)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문법접사(또는 굴곡접사)로 다시 유형화하였다.

형태론 연구가 단어를 분석하여 구성방식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생성과정을 제시하기 위하여 단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형태소를 규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한, 국어의 형태소 분석과 그 유형을 제시하는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진다. 한편 형태론의 기본 단위를 새롭게 검토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형성소, 구성소, 어소라는 개념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고영근 1993). 공시적으로 생산적인 요소를 형성소, 비생산적인 요소를 구성소, 이를 묶어 어소라 하였다.

2.2.2. 형태소의 분석 한계

국어의 교착어적인 성격과 문법형태소가 역사적인 문법화 과정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태소 분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접속어미를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접속어미의 형태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권재일 1991 참조).

최현배(1937/1971)에서는 접속어미를 의미 관계에 따라 14가지 갈래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접속어미들을 제시하였는데, 형태소 분석과 관련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소 분석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을것같으면, -을지대, -은지라, -을지라도'. 둘째, 형태소의 변이형태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모두 제시하였다. '-어서, -아서'. 셋째, 선어말어미를 분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접속어미로 제시하였다. '-더니, -노니'.

이와 같은 고전적인 형태 분석을 벗어나서 좀 더 정밀한 방법으로 접속어미를 분석하여 목록화한 것은 고영근(1975)에서이다. 둘 이상의 형태소로 분석될 수 있는 형태는 모두 분석하나, '-느-, -더-, -으리-' 등은 교착되어 있다고 하여 분석하지 않은 단위를 통합 관계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현대 국어의 구조적 양상을 중시한 분석이라고 밝혔다(고영근 1978). 권재일(1985)에서는 현실 언어에서 존재 가능한 차원에서 형태소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형태소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더-'는 분석하되, '-거-'는 분석하지 않은 편에 섰다. '-더-'는 현대 한국어에서 회상법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인식이 가능하여 '-던'은 '-더-'와 '-은'으로, '-더니'는 '-더-'와 '-으니'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건만'은 '-거-'와 '-은만'으로, '-거니'는 '-거-'와 '-으니' 등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현대 국어에서 '-거-'가 형태소로서 독자적인 형태로 인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언어의 표기나 기술이 지나치게 가공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상태(1988)에서는 단순형, 복합형, 머리요소 전용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서, 복합형에는 조사 접미형(-어야 : -어-야), {거, 더}결합형(-거니 : -거-니), {는, 를}추상형 등으로 나누어 조사와, 선어말어미, 관형형 어미 등을 모두 분석해 내고 접속어미의 형태소를 결정하였다. 조건어미를 대상으로 형태 분석의 방향을 제시한 구현정(1989)에서는 문법 기술의 복잡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형태 분석이 필요하고, 형태 분석을 위해서는 형태 분석의 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독립하여 하나의 형태소로 쓰이는 접속어미 가

운데 공시적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어미를 단순-조건씨끌(-으면, -거든, -어야, -어도)이라 하고, 여러 개의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를 복합-조건씨끌(-다면, -라-면, -자-면, -으려-면, -느라-면, -더라면, -으면-은 등)이라고 하여, 복합-조건 씨끌은 다른 어미나 다른 조사가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재분석하면, 형태소의 목록을 줄여서 문법 기술의 복잡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서로의 관련성을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 상의 논의는 가능한 한 단순 형태소로 분석하려는 논의들로,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가공적인 형태소로 분석할 위험성을 배제한 방법론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접속어미의 추상적인 분석 방법이 제기된 바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창해(1964)를 바탕으로 한 박기덕(1974)에서의 논의가 그 대표적이다. 박기덕(1974)에서는 연결접사의 형태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K [추정], N [진행], T [경험], M [존재], L [예기], NG [정서적 존재], S [추상], Y/I [지정], C [경험을 통한 회의], P [특정한 존재], A [지속]. 즉 기존의 접속어미를 분석하여 {K}는 [추정]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K}가 들어있는 접속어미는 추정의 개념을 나타낸다는 것을 통계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거나'는 {ㄱ}(K), {ㄴ}(N), {아}(A)와 같은 세 가지의 형태소가 결합한 형식으로 보며, '-거나'의 의미는 [추정된 상태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됨], [선택]이라고 해석하였다. '-려고'는 {ㄹ}(L), {ㄱ}(K)와 같은 두 가지의 형태소가 결합한 형식으로 보며, 그 의미는 [예기된 상황이나 상태를 추정함],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의도]라고 해석하였다.

1970년대 이후 일관된 생각으로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를 연구하면서 접속어미의 형태를 추상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논의는 서태룡(1979)에서 시작된다. '-더-, -느-, -거-'와 같은 요소를 선어말어미로 설정하고 모두 분석하며, '-은, -을' 등과 같은 요소도 관형형 어미로 설정하고 모두 분석하였다. 즉 이들을 앞세우는 형태들은 모두 둘 이상 형태소의 결합으로 보고서 분석하였다. 서태룡(1987)에서는 국어의 활용어미를 단일 어미와 복합어미로 나누고, 복합어미는 분석될 수 있는 둘 이상의 구성체로 이루어진 활용어미라고 하였다. 재분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어미의 형태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재분석이란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하나로 인식되는 통합형을 그 구성요소로 분석하여 그 형태와 의미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재분석을 통해, 통시태와 공시태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고, 형태소의 목록을 줄일 수 있고, 형태나 의미의 기술과 설명을 정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재분석은 음운

론적인 근거, 형태론적인 근거, 의미론적 근거, 통사론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접속어미의 재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으나, -으니, -으며, -으러, -으려고’는 동명사 어미 ‘-은, -음, -을’과 어말어미 ‘-아/어, -어, -고’로 분석한다. 둘째, ‘-다만, -지만, -어도, -어야’는 정동사 어미 ‘-다, -지, -어’와 후치사 ‘-만, -도, -야’로 분석한다. 셋째, ‘-게, -거든, -느라고, -더라도’는 선어말어미 ‘-거-, -느-, -더-’ 등으로 분석한다. 다시 말하여, ‘-으나’는 ‘-은+-아’로, ‘-으니’는 ‘-은+-이’로, ‘-다만’은 ‘-다+-만’으로, ‘-게’는 ‘-거+-이’로, ‘-거든’은 ‘-거-+-든’으로 재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형태 분석은 형태소의 목록을 줄이고, 문법과 의미 관계의 설명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제기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분석 방법은 의식 세계와는 거리가 먼 가상적인 형태의 설정, 문법과 의미 설명에서의 일관성의 결여, 공시태와 통시태의 혼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극단적이며 추상적인 형태 분석 방법론과, 현대 국어의 공시적인 구조 양상에 바탕을 둔, 의식 세계에서 가능한 형태 분석의 방법론 사이에서, 어떤 방법론이 형태소 확인과 형태 연구에서 더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인지는 지금도 논의가 계속되는 일이지만, 형태론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즉 ‘-으려고’의 형태 분석을 {-으려고}로 할 것인가, {-을}+{이-}{-어}+{-고}로 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2.3. 굴곡론 : 어미와 조사의 성격

문법형태소는 의존형태소인 동시에 굴곡형태소이다. 문법형태소는 선행하는 요소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인식해 왔다. 문법형태소가 앞세울 수 있는 것은 체언의 경우와 둘째 용언의 경우로, 전통적으로 체언에 관여하는 기능이 곡용이며, 용언에 관여하는 기능이 활용이다. 곡용에 관여하는 문법형태소가 곡용접사(또는 곡용어미)인데, 조사로 기술해 왔다. 활용에 관여하는 문법형태소가 활용접사(또는 활용어미)인데, 어미로 기술해 왔다.

이제 굴곡법에 관여하는 어미와 조사를 각각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그리고 두 범주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3.1. 어미의 성격

어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 어미의 체계를 세워 보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체계를 세우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기준은 용언의 형태론적 구성에서의 위치였다. 이것은 최현배(1937/1971)에서 설정한 이른바 보조어간의 개념을 극복하려는 것과도 관련을 맺는다.

어미는 용언의 형태론적 구성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부류로 인식하였다. 용언의 형태론적 구성을 끝맺는 위치에 분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끝맺지 않은 위치(혹은, 끝맺는 위치 앞)에 분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허웅(1975)에서는 이들을 맷음씨끝과 안맺음씨끝이라는 술어로 기술하였다. 학교문법(1985/1991/1996)에서는 이들을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술어는 외국인학자 M. Yokoyama 와 S. Martink의 책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한다(고영근 1989: 243-5). 선어말어미라는 술어에 대하여 남기심·고영근(1985: 21)에서 남기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온다고 하는 것보다 어근이나 어간 뒤에 오는 것이며, 어말어미는 그 맨 끝자리에 와서 단어를 끝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국어는 첨가어이며, 첨가어에서는 언제나 왼쪽의 어근에 접사나 어미가 차례로 붙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기준은 어근이다. 그러나 선어말어미란 말은 어말어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앞 자리에 온다는 뜻이 되어 첨가어의 기본 성질에 어긋나는 표현이 된다. 선어말어미는 바른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보다는 비어말어미(非語末語尾), 또는 비종결어미(非終結語尾)와 같은 명칭이 국어의 첨가적 성질에 더 부합할 것 같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 고영근 교수는 고영근(1989: 243-5)에서 “남 교수의 견해는 구조적 상관성을 생각하지 않은 매우 평면적인 관찰의 소산이며, 어미구조체를 기능에 따라 나눈다면 선어말어미라는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서정목(1987)에서는 이들을 문말어미(文末語尾), 선문말어미(先文末語尾)라 하였는데, 이는 어미의 통사 기능을 부각한 것으로 본다. 최근의 변형생성문법 기술에서는 INFL을 선어말어미, COMP를 어말어미에 대응하고 있다.

2.3.2. 조사의 성격

조사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조사의 주된 통사 기능은 격의 실현이다. 명사는 홀로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조사가 결합하여 일정한 문장성분으로 기능한다. 명사에 결합해서 일정한 문장성분으로 기능하게 하

는 조사가 격조사이다. 격이란 문장성분들이 문장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이다. 결국 격조사는 이러한 기능을 명사에 부여하는 조사이다.

그런데 조사는 모두 격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다. 조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장성분에 결합할 수 있어서 일정한 문장성분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것이 결합한 구성의 의미를 한정해 주는 것이 있다. ‘-도’, ‘-는’, ‘-만’ 등이 그러하다. ‘-도’가 결합함으로써 [역시]라는 의미를 실현한다. 이와 같이 특정 의미를 한정해 주는 조사를 보조조사라 한다. 이승녕(1961) 등에서는 격어미(즉, 격조사)도 아니고 어간형성 접미사도 아닌 ‘-부터’, ‘-조차’ 등을 따로 독립시켜 후치사로 설정한 바 있다. 후치사는 알타이제어 문법에서 흔히 설정하는 품사인데, 국어에 대해서는 이미 Ramstedt(1933 및 1939)에서 설정된 바 있었다. 이외에도 명사와 명사를 잇는 기능을 가지는 조사는 접속조사(혹은 연결조사)로 규정되었으며, 또 종결된 문장 뒤에 결합하는 조사, 예를 들어 청자높임의 기능을 가지는 ‘-요’, 인용절을 이끄는 ‘-고’, 그리고 ‘-마는’, ‘-그려’ 등은 문장종결 특수조사로 규정된 바 있다(권재일 1985).

대체로 격조사는 문법 관념을, 보조조사는 어휘 관념을 실현하지만, 격조사의 경우에 반드시 격의 기능인 문법 관념만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 관념을 실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을’은 목적격을 실현하는 격조사이지만, [강조], [주의집중] 등과 같은 어휘 관념도 실현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조사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모든 조사는 문법 관념과 어휘 관념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조사에 따라 다만 문법 관념의 비중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권재일 1989). 주격조사 ‘-이/가’는, 주격 기능인 문법 관념의 실현이 거의 전적이고, 보조조사들은 어휘 관념의 실현이 거의 전적이어서, 각 관념의 양 끝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격조사들은 이 사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어 조사에서 문법 관념의 비중이 높은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주격>목적격>관형격>부사격(위치격>방편격>비교격)’. 한편 조사 생략의 정도는 대체로 문법 관념의 정도에 비례한다. 문법 관념의 비중이 높을수록 생략이 자유롭다. 이남순(1988)에서도 부정격으로 실현되거나 격표지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화제)>주격>대격>처격>조격>공동격’으로 설정한 바 있다.

2.3.3. 조사와 어미의 관계

다음으로는 굴곡법에 관여하는 어미와 조사라는 두 범주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

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사와 어미의 품사적 지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었다. 첫째, 둘 다 독립된 품사로 보는 견해. 둘째, 둘 다 품사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셋째, 조사는 독립된 품사로, 어미는 용언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보는 견해.

국어 문법 연구의 초창기에 주시경 선생의 어간과 어미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품사 분류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주시경 선생이 「말의 소리」(1914)에서 제시한 국어의 품사는 ‘임, 엇, 움, 것, 잇, 궂’이다. 그런데 이중 ‘임, 엇, 움’을 묶어서 봄씨, ‘것, 잇, 궂’을 묶어서 토라 하였다. 여기서 토는 어미와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품사 분류의 특징은 조사와 어미에 대해서도 품사의 자격을 부여했으며, 조사와 어미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품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을 직능, 형식, 의미로 제시하고서, 조사와 어미를 명확히 구별하여, 조사에만 품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어미에 대하여는 품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정열모(1946), 이승녕(1961)에서는 어미는 물론이고 조사까지도 단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사를 품사에서 제외시켰다.

허 응(1975)에서는 어미를 순수한 굴곡법으로, 조사를 준굴곡법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최현배(1937/1971)의 인식과 같이, 어미와 조사의 성격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였다. 조사는 독립성이 강한 체언에 결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자립성이 약하지마는, 한 단어로 보는 것이며, 이와는 달리, 어미는 그 자체가 자립성이 없는데다가, 자립성이 약한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 서로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용언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어미를 순수한 굴곡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형태론적 구성은 하나의 단어인데 비하여, 조사는 형태론적 구성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준굴곡법인 것이다. 조사는 선행요소인 체언이 조사 없이도 자립하여 문장에 실현된다는 점과 보조조사의 경우는 어휘 관념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와는 달리 독립된 품사로 설정한 것이다. 학교문법(교육부 1985/1991/1996)의 기술도 이와 같다.

그러나 최근 어미와 조사의 상호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고영근(1993), 서정수(1994)로 대표된다. 명사나 동사에 붙는 형태부를 토라는 범주에 묶되, 이를 다시 기능별로 나누어 고유한 기능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태도는 원칙적으로 주시경의 ‘토’ 개념을 받아들이되, 단어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국어의 교착적 특성에 근거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문법 모형과 같다. 체언에 대해서도 용언처럼 어간을 인정하여야 하고, 조사에 대해서도 어미와 같

은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로,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을 봄, 체언이나 용언의 문법형태소는 토 또는 발로 기술하여 조사와 어미를 동일 범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제 국어형태론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4. 조어론 : 합성법과 파생법의 성격

2.4.1. 단어의 구성

조어법의 두 구성방법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합성법과 어근과 접사(파생접사)가 결합하는 파생법이다(허웅 1963 및 안병희 1965가). 단어의構성을 한 형태소로 구성된 단순어와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복합어로 체계화할 때, 복합어는 합성법에 의한 합성어와 파생법에 의한 파생어로 나뉜다.

그러나 이희승(1955: 249-)에서 단어의構성을 단일어와 합성어로, 합성어를 복합어와 파생어로 분류한 이래, 복합어와 합성어 사이에 술어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단어를 단순어와 복합어, 복합어를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체계화하는 것이 문법기술에서 훨씬 더 일관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어떤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때 ‘그 관계가 1:1의 관계인가, 1:n($n \geq 2$)의 관계인가’라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관계가 1:1의 관계일 때가 ‘단순 관계’ 1:n($n \geq 2$)의 관계일 때가 ‘복합 관계’이다. 예를 들면 문장에서 ‘문장:서술기능’이 1:1의 관계일 때를 단순문(simple sentence), ‘문장:서술기능’이 1:n($n \geq 2$)의 관계일 때를 복합문(complex sentence)이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술을 위해서라면 모든 문법 기술에서 그 관계가 1:1일 때는 ‘단순-’이라는 술어를, 1:n($n \geq 2$)일 때는 ‘복합-’이라는 술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어 의미를 체계화할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하나의 시니피에가 하나의 시니피앙과 관계를 맺을 때, 즉 1:1의 관계일 때를 단순의미어, 하나의 시니피에가 둘 이상의 시니피앙과 관계를 맺거나, 혹은 하나의 시니피앙이 둘 이상의 시니피에와 관계를 맺을 때, 즉 1:n($n \geq 2$)의 관계일 때를 복합의미어로 체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단어의構성을 체계화할 때에도 ‘단어:형태소의 수’의 관계에 따라 1:1이면 단순어, 1:n($n \geq 2$)이면 복합어로 체계화하면, 일관된 문법 기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단어의 체계

- 단순어 어근

○ 복합어

- 합성어 어근+어근
- 파생어 어근+파생접사

기술문법에서의 조어론이 단어의 구조 분석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형태론, 즉 생성형태론은 단어의 생성 과정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음운, 통사, 의미 정보를 이용하여 단어의 생성과정을 규칙이나 원리로 설명해 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4.2. 파생법의 성격

국어형태론에서 파생어 형성과 관련한 주된 논의 대상은 파생접사의 목록 확인을 비롯한 파생어 형성 규칙과 그 제약 현상, 특히 파생접사의 어근 선택 제약 현상에 대한 것이었다.

생성형태론의 영향을 받으 연구는 송철의(1977)에서 파생접사의 어근 선택 제약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졌다. 김창섭(1984), 조남호(1988) 하치근(1987/1989), 김지홍(1986), 송철의(1990/1992), 시정곤(1993/1994), 이재인(1994) 등이 그러하다. 송철의(1990/1992)는 파생어 형성 규칙을 기술함에 있어 각 접미사가 결합되는 어근에 대한 음운론적·형태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 제약을 밝힘으로써 국어의 파생어 형성 규칙들을 정밀화해 했다.

한편, 전통적으로 파생접사로 여겨져 온 ‘-답-’에는 통사론적 구성인 명사구에 결합하여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답-’과 순수히 형용사 파생의 기능을 하는 ‘-답-’을 가진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는데(김창섭 1984), 이는 파생어 형성을 단어 차원에서 문장 차원으로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로, 통사적 파생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의는 접사 형태소를 어휘적 접사와 통사적 접사로 기술하기에 이르렀다. 어휘부에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접사가 어휘적 접사, 통사부에서 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구를 형성하는 접사가 통사적 접사인데, 일부 파생접사와 굴곡접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시정곤 1994).

파생어 형성과 관련하여, 공시성이 있는 파생어와 그렇지 못한 파생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파생어의 통사성을 밝혀 보려한 시도, 영-접사파생에 대한 관심 등을 파생어 연구를 더욱 정밀화하는 데에 기여한 한편,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하다.

2.4.3. 합성법의 성격

합성어 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구와 합성어의 구별 기준을 확립하려는 논의가 계속 되는 가운데, 합성어의 형성 과정을 밝혀 합성어 형성 규칙을 찾아 보려는 연구가 이어졌다.

합성명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해돋이’, ‘줄넘기’, ‘고기잡이’와 같은 합성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들은 두 요소 사이에 사이시옷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없고, 둘째 요소인 ‘돋이’, ‘넘기’, ‘잡이’가 자립적인 파생명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발걸음’, ‘기찻놀이’와 같은 합성명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결국 문제는 ‘해돋이’가 [[해+돋]+이]로 분석할 것인가 [해+[돋+이]]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김창섭 1983, 연재훈 1986, 시정곤 1993/1994).

합성동사와 관련하여 ‘어간-어+어간’ 구성의 합성동사와 ‘명사+하다’ 구성의 합성동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판별기준, 형성 원리를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하다’의 성격 규정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반복합성어와 관련하여 주로 이들의 구성방법과 유형, 음상교체 등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이익섭 1982, 채완 1986). 그래서 반복합성어의 형성 규칙을 밝히고, 음상교체 양상을 더욱 정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구성요소들 사이의 어순과 반복의 의미를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2.5. 형태론 연구의 전망

지금까지 국어형태론 연구에 대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국어형태론의 연구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국어형태론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 문법의 연구 대상, 국어형태론과 국어통사론에 대한 연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가 연구의 중심이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분야를 경시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사론 중심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형태론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어 문법의 연구 영역의 균형뿐만 아니라, 형태론 내부의 연구 분야의 균형을 이루는 연구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조어론에 치우친 연구를 극복하여 굴곡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어느

특정 주제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형태론의 모든 분야를 빠짐 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데에 힘쓰며, 연구사적인 검토를 통해 학문 체계 전반을 늘 조망하는 연구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어형태론의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앞 시대에 이룩한 학문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학문 연구의 성과란 아무런 바탕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선 연구의 전통이 바탕이 되어 이를 계승하고, 수정·보완해서 완성되어 발전해 간다. 그래서 앞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검토하고 이어받아, 그러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연구를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시경 선생 이후 잘 가꾸어진 국어형태론의 수준 높은 줄기가 염연히 있는데도, 그것을 돌보지 않고 있었음은 극복해야 할 자세라고 본다. 주시경의 ‘놋씨’나 한글맞춤법에서의 ‘원형’(주시경의 용어로는 ‘원테’),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서 공시태와 통시태를 구별하려 했던 인식들은 좀더 발전시켰더라면 훌륭한 이론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송철의 1997).

둘째, 지금까지의 언어학이 경험주의를 지양하고 이성주의에 입각했었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어 형태 현상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관찰하고, 관찰한 자료를 합리적으로 기술하려는 연구 자세가 소홀했던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인류가 언어에 관심을 가진 이래, 경험주의 연구관과 이성주의 연구관은 순환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둘은 순환하거나 어느 한 가지를 지양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하면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언어 사실을 기술하는 경험주의적 접근도 존중되어야 하며, 언어 능력을 해명하려는 이성주의적 접근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언어 사실에 대한 연구는 언어 속에 작용하고 있는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일에 기여하며, 새로운 이론은 언어 사실을 기술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형태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한 파생어사전, 합성어사전을 편찬하는 일도 매우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개별어의 구체적인 언어 사실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는 일반 언어 이론은 가공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지금까지의 연구가 연구 분야를 세분화하여 자율성을 강조하고, 분야별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을 추구하였다면, 이를 통합하는 이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 형태론과 통사론은 독자적인 지위를 확립한 바탕에서, 형태론

과 음운론, 형태론과 통사론, 형태론과 의미론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통합적 연구 방법을 지향하면 훨씬 더 경제성 있는 이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시적 연구 방법론에 치우쳤던 지금까지의 언어 연구 방법을 극복하여, 통시적 연구 방법론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공시태와 통시태는 그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을 수 없으며, 이 둘은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다. 국어 형태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헌 자료를 발굴하고, 방언 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어 형태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시태의 규명에도 기여할 것이다. 통시적 정보의 부재는 자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것은 다시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통합할 수 있는 범시적 연구 방법론을 확립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3. 국어 통사론 연구 —통사론 연구의 반성을 위한 제언—

3.1. 목적

제3장은 주로 광복 이후 우리의 통사론 연구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반성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특히 어떤 점이 문제되는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관심은 종래의 연구가 특히 어떠한 점을 소홀히 했으며, 특히 종래의 연구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를 반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문제의 연원이 과거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시대적인 경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이전의 업적도 언급하기로 한다.

우리 논의의 입각점을 상징적으로 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국어에 대한 문법적 성찰의 눈뜸의 순간을 우리는 놀랍게 도 주시경(1906:24-25)에서 볼 수 있다.

(1) 주시경(1906:24-25), ‘대한 국어 문법’의 일절

내가 십오세에 국문을 처음으로 공부할 새 “조희와 붓과 벼루와 칙은 선비의 쓰는 물건이라” 호는 말을 쓰고 본즉, ‘붓, 먹’ 두 조 밑에는 ‘과’즈요 ‘조희 벼루’ 두 조 밑에는 ‘와’즈라 그 땐 곳 생각나기를 ‘과’나 ‘와’는 다 토라. 이 두

주는 다 眞書의 及주의 뜻과 같이 ‘조희, 봇, 먹, 벼루, 칙’ 사이를 련흘 짜름이 어늘 [...] 다시 살펴본즉 ‘봇, 먹’ 주는 받침이 있고 ‘조희, 벼루’ 주는 받침이 업는지라. 이에 받침 있는 조 밑에는 ‘파’ 주가 쓰이고 받침 업는 자 밑에는 ‘와’ 주가 쓰임인가 흐고, 이를 밀우어 달은 말들을 시험해 본즉 과연 그러 흐고 [...] (띄어쓰기, 문장 부호 필자)

1890년 무렵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의 사건은, 다소 과장을 하면,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 있는 문법적 성찰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순간이 기록되어 전하는 것 만도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순간이 특히 감동을 주는 것은 문법적 성찰이 다른 문법의 영향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찍트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수준은 지극히 낮고 극히 초보적인 사실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1)을 최근의 촘스키 문법이나 그 영향 아래 쓰여진 거창한 논의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혹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법적 성찰이란 말을 쓸 수 있는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15세 학동의 인식에 지나지 않는 (1)은 아직 살아 있다. 이것은 언어학의 혁명에 해당하는 업적이라 일컬어지는 촘스키(1957) 중에서 지금 살아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¹⁾ 촘스키(1957)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초창기의 국어 문법적 논의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을 찾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다른 한편, 주시경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문법 술어들은 지금 거의 다 죽은 상태이다.²⁾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적인 명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문법적 성찰이 오래 살아 남기 위해서는 토착적인 언어 사실에 튼튼히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언어학과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편성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교훈적 명제

- 가. 문법적 성찰이 비교적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실에 튼튼하게 기초해야 한다.

-
- 1) 구절 구조(혹은 이후의 ‘구구조’) 규칙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하나이다. 최근의 생성문법의 동향에 대해서는 양동희(1994나, 1996) 및 박승혁(1997), 윤만근(1997) 등이 참고된다.
 - 2) ‘기난갈[품사론], 짬듬갈[구문론]’ 등과 같은 술어를 비롯하여, ‘다[집합어], 모[구(句)] 드[문(文)], 미[문장(文章)]’ 등과 같은 많은 술어들을 말한다. 김민수(1977/1986) 참조.

나. 문법적 논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언어학과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즉, 보편성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가)를 자료적 요구 조건 혹은 대상적 요구 조건이라고 한다면, (2나)는 도구적 요구 조건이라 할 수 있고, 또 달리 (2가)를 내용적 요구 조건이라 한다면, (2나)는 형식적 요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상이 없이 도구는 가치를 가질 수 없고, 도구가 없이 대상은 자기 고유의 효용성을 드러낼 수 없다. 내용과 형식의 긴장과 대립 혹은 조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 요구 조건과 형식적 요구 조건이 언제나 균형 있게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의 언어학 혹은 국어학 연구는 이 두 갈림길에서 어느 한 쪽으로 찢겨 왔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언어학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이 우리 언어학의 체질처럼 변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무엇이 저들의 영향이고 무엇이 저들의 영향이 아닌지를 판갈음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국어학의 일정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또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국어 문법적인 논의의 성과가 소개되고 검증되어 왔다.³⁾ 그러나 우리의 체질처럼 되어 버린 서구 언어학의 영향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함으로 작용하고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드물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필자의 관심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제까지 전개되어 온 통사적 논의의 결함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 전부를 다룰 수는 없다. 우리의 목적이 기왕의 논의들을 소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양보를 두어, 본 논의가 혹 범하였을지도 모르는 잘못이나 미처 보지 못한 논의에 대하여 독자에게 양해를 얻고자 한다.

3) 고영근 외 4인(1979), 서태룡(1981), 고영근(1985, 1987), 성백인(1986), 김영희(1989), 이현희(1989), 홍종선(1989) 등은 90년대 이전 시기의 반성적 성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강명윤(1990), 이경민(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1990), 서정수(1991), 서정목(1992), 임홍빈(1992), 김민수 편(1993), 권재일(1994), 김기혁(1995), 정승철(1995), 김승곤 편(1996), 김정대(1996), 문양수(1996) 등은 90년대에 들어 이루어진 반성적 성찰이다. 90년대에 들어 부쩍 이러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해방 50년과 같은 시간적인 계기가 이러한 성찰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사에 대한 연구사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연구사가 쓰여졌다. 김승곤 편(1996)은 그러한 성격을 띤다.

3.2. 어휘 항목의 온전성 문제

3.2.1. 어순 공리와 어휘 파괴

양동희(1994나:352)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소개되고 있다.



(2가)는 영어의 결정사(determiner)라고 하는 this를 th-와 -is로 나눈 것이며, (2나)는 that를 th-와 -at로 나눈 것이다.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에 선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를 비대칭적으로 성분-지휘(c-command)해야 한다는 케인[Kayne](1993)의 어순 공리,⁴⁾ 즉 ‘선적 대응 공리(Linear Correspondence Axiom)’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this를 th-와 -is로 자른 것이며, that를 th-와 -at로 자른 것이다. 그래야 영어에서 동사 뒤에 this나 that가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양동희(1994 나:352)의 소개는 (3가)와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촘스키(1994:29)의 설명을 (3나)에 가져 오기로 한다.

(3) 가. 촘스키[Chomsky] (1994)는, this, that과 같은 한정사는 th-라는 핵 D가 -is나 -at라는 보충어를 택하여 (304)[위의 (2)]와 같은 DP 구조를 형성한다고 본다. (양동희(1994:352))

나. 영어의 this, that과 같은 결정사는 추측컨대 강한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서 첫 자음은 (‘the’와 ‘there’에서와 같이) D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일종의 형용사를 나타낸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⁵⁾ (촘스키(1994:29) 참조)

촘스키(1994)에서 필자의 눈에 띈 것은 (3나) 정도이다. this, that가 결정사라는 것, 그 첫 자음이 “결정사(D)”라는 것, 그 나머지 -is와 -at가 아마도 형용사일 것이라는 것이다. -is와 -at의 품사에 대한 언급은 (3가)에는 없다. (3나)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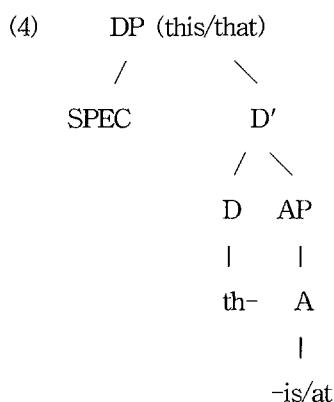
4) 양동희(1994)에서는 이를 ‘어순 공리’로 번역하고 있다.

5) this나 that는 ‘I picked it up.’과 같이 국소적으로 접어화하지 않는다.

결정사가 형용사구를 보어로 취한다는 것이다. (3나)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애브니[Abney] (1987)적인 가설이다. 결정사는 형용사구를 보어로 취하고, 다시 형용사는 명사구를 보어로 취한다.

(3)에는 애브니[Abney](1987)적인 결정사구 가설이 가지는 문제 외에도,⁶⁾ 그 적용에 있어 (3) 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있다. (2)는 결정사(D)가 그 보어로 형용사구(AP)만을 가지고 결정사구(DP)를 이루를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된 것이다. 그러나 영문법에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특수한 경우⁷⁾ 외에는 결정사가 형용사나 형용사구와 함께 독립적인 범주를 이루는 일은 없는 것이다. 반드시 명사를 가져야 한다. 이는 촘스키(1994)나 애브니(1987)적인 의미의 결정사구(DP)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핵이 그 자체로서 구범주가 될 수 없는 것은 기능 범주에 국한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보어를 가지고도 독립적인 범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적어도 결정사구라는 것이 다른 범주와는 다른 것임을 말해 준다. 그것은 어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2)에는 범주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결합이 은폐되고 있다. (2)에 엑스-바 도식에 따라 충위와 범주를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4)는 어휘 항목의 문제를 논외로 하면, 결정사(D)가 형용사구(AP)를 취하여 D'가 되고, 그것이 지정어(SPEC)와 함께 DP를 이루는 구조를 보인 것이다. (4)는 (2)에 표시된 요소들을 어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범주에 위치시켜 본 것이다. 결

6) 애브니(1987)적인 결정사구 가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홍빈(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7) 여기서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the rich, the brave'와 같은 구성을 말한다. 그 외의 경우는 결정사가 앞에 오고 형용사가 그 다음에 올 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한다.

정사가 형용사(구)와만 결합한 구조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2)에는 (4)와 같은 층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범주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문법은 이러한 구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⁸⁾ 결과적으로 (3가, 나)에는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에 대한 혼동이 있고,⁹⁾ 일반적인 구성에 대한 원리조차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일반적인 원리”란 아주 초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어와 같으면 관형사는 뒤에 명사가 와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4)의 D 자리에 “a, an, the, my, this, that” 등과 같은 단어를 놓아 보고, 다시 A의 자리에 “good, bad, big, small, careful, wrong” 등과 같은 영어의 단어를 놓아 보라. 그것이 일반적인 구조가 아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애브니(1987)적인 가정에 의하면 형용사는 명사구를 보어로 취한다. (4)에 이를 반영하면 명사구는 아마도 공범주로 상정된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더 계속되기 전에 중지해야 한다. 문제의 접근이 처음서부터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4)에서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4)에서 A 교점에 걸려 있는 -at/is가 그 보어로서 명사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형용사가 명사구를 그 보어로서 요구한다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가정이거니와, -at/is가 보어를 요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논의이다. -at/is는 형용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음성적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것이 독립적인 어휘 항목이라든가, 그것도 형용사라든가 하는 것과 같은 증거를 얻을 수 없다. 그러한 항목을 등재한 사전도 있을 수 없고, 다소 과장을 하면 앞으로 어떠한 사전이 편찬되더라도 그러한 항목은 표제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어휘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절대로 문법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4)에서 우리는 (2)의 두 가지 그림을 하나의 나무그림으로 나타내 보였다. (2)에서는 왜 동일한 구조의 그림을 둘로 그린 것일까? 독자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촘스키(1994)가 지향하는 것이 “나상(裸狀) 구구조”이기 때문이다. 구범주에 대한 추상화를 거부한다. 그러나 구범주에 대한 추상화는 일반화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문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법적인 기술은 추상적인 범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

8)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나상(裸狀) 구구조(Bare Phrase Structure)”에서 “나상(Bare)”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9) 이는 D 범주의 어휘 항목과 그 위의 범주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곧 다시 다루기로 한다.

다. 자명한 사실이지만, 구성에 대한 범주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반성은 포착될 수 없는 것이다. (4)에서 두 개의 그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¹⁰⁾

(3가, 나)에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나 결코 사소한 것일 수 없는 범주의 혼동이 있다. (3가)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this, that는 분명히 “한정사[결정사]”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핵 D의 투사(projection)이다. 핵 D는 다름 아닌 “한정사[결정사]”이다. 자기의 투사가 다시 자신이 된다. (2)에서 그것은 좀더 추상적으로 th-의 투사가 다시 th-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장 소박한 의미에서 그것은 어휘 항목과 그것이 이루는 구성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 항목과 그것이 이루는 구성이 어떻게 동일한 것일 수 있는가? 양동희(1996:129~130)에서는 “‘통사론’의 실종?”이란 제목에 의문 부호를 달고, “최소 이론에서 통사론은 실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으나, 구성과 층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론은 이미 구성에 대한 이론은 아닌 것이다.

왜 이 부분에서 최소 이론이 가장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는가? 어휘 항목을 무단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어휘 항목은 통사론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필연적인 경우가 아니면, 아니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5) 어휘 항목의 파괴 금지 조건

통사적인 논의나 기술에서 어휘 항목을 물리적으로 혹은 무단히 파괴하는 일은 금지된다.

3.2.2. 사동의 의미론과 어휘 해체

어휘 항목을 의미 원소(semantic primitive)로 분해하는 ‘어휘 해체(lexical decomposition)’ 분석과 같은 것은, 우리가 (2)에서 본 바와 같은 물리적인 파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어휘 해체를 통하여 통사적인 기술의 기초적인 단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휘 항목에 대한 물리적인 파괴와 그 성격이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니다. 의미 원소적인 분해가 의미론적인 해석에는 혹 유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통사론의 직접적인 재료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10) 촘스키(1994)에서 원리적으로 내세운 것은 구성에 대한 범주 표시가 없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기술에는 범주가 표시된다.

어휘 해체는 분명 어떤 어휘 항목이 가지는 고유한 문법적 특성을 파괴시킨다. 혹은 그것이 가지지 않은 다른 문법적 특성을 부가하게 된다. 어느 것이나 동질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무엇보다도 이 점이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의에 따라 어휘 항목을 근거 없는 의미 원소로 분해하는 작업이 자행될 염려가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휘 해체 전의 어휘 항목이 가지는 통사·의미적 특성과 해체 후의 구성이 가지는 통사·의미적 특성이 아주 미세한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 경우, 자칫 어휘 해체 분석을 흑 유용한 것은 아닐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 항목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바로 문법이나 통사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는 것은 영어식의 표현법으로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시바타니(1973)에 대한 양인석(1974)에서의 방어는 기념비적인 노력으로 기억될 만한 것이지만, 어휘 해체가 가지는 통사·의미적 특성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6) 가. *화가가 만화의 주인공을 웃겼다.
나. 화가가 만화의 주인공을 웃게 하였다.
- (7) 가. 영희가 머리를 길렀다.
나. 영희가 머리를/머리가 자라게 했다.
- (8) 가. 요즘은 도무지 아이들을 길러 먹기 어렵다.
나. *요즘은 도무지 아이들을/아이들이 자라게 해 먹기 어렵다.
- (9) 가. 아저씨가 아버님께서 웃으시게는 하였다.
나. 아저씨가 아버님께서/아버님을 웃으시게도 하셨다.

(6가)는 이른바 단형 사동이고, (6나)는 장형 사동이다. (6가)의 부적격성은 (6가, 나)가 동의일 수 없음을 말해 준다(임홍빈(1976) 참조).¹¹⁾ (7가, 나)의 동사는 이정민(1973/1974)에서 사동적으로 관련된 동사의 예로 든 것이다. 어휘 해체가 반드시 '죽다-죽이다'와 같이 음운론적인 형식이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이기 위하여 예로 든 것이다. 그럴 경우 사동법 문제는 이미 형태의 차원을 넘어선다. '자라다-기르다'의 관계는, 권재일(1992:157)에서는 어휘적 사동법이 될 것이지만, '가다-보내다'와 같이, 어

11) 이정민(1974:139~140)에서는 두 사동이 인지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나, 함의(entailment)에서는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저에 성분 문장을 가정하는 것은 어휘 해체 분석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휘 항목 사이에 맺어지는 의미론적 관계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장형에서는 (6)-(9)의 (나)에 보인 바와 같이 피사동주 관련 성분이 ‘을/를’ 조사나 ‘이/가’(혹은 ‘께서’) 조사를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으나 단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밖에도 장형에는 두 개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고, 주체 높임 형태가 두 번 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형에서는 원리적으로 이 같은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통사적인 관련의 필연성이 적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0) 어휘 해체 분석의 성격

어휘 항목을 의미 원소로 분해하는 것은 어휘 항목이 가지는 고유한 문법적 특성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어휘 해체가 (10)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그것은 적어도 통사적으로는 (5)의 조건에 의하여 금지된다.

3.2.3. 피사동 문제와 어휘 파괴

국어에서 피동과 사동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해 내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한국 어학에 나타난 가장 야심에 찬 기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박양규(1978)에서 생성 의미론적인 시도를 볼 수 있고,¹²⁾ 다시 강명윤(1997)에서 최소 이론적인 해석의 하나를 볼 수 있다. 박양규(1978)에서는 피동과 사동의 접사를 다같이 ‘-이’로 가정하고 그 기능을 사동이나 피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그 논지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11) 가. 사동이나 피동의 개념이란 각각 새로운 주어의 도입으로 인한 동사 의미 자질의 비재귀화와 재귀화에 대한 실용적인 의미 해석일 뿐, 그 자체가 ‘-이-’의 기능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65쪽, 밑줄 필자)
- 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 경우의 ‘-이-’를 별개의 형태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 (65쪽)
- 다. 사동의 ‘-이-’와 피동의 ‘-이-’는 새로운 주어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상

12) 박양규(1978)에서 “생성 의미론”이란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박양규(1978)에서 통사론이라는 것은 엄격히 “어사간의 관계에 의하여 기술되는 것(69쪽)”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그 논의의 성격은 기저 구조를 의미 구조로 생각하는 생성 의미론적인 전제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사를, 그리고 새로운 주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상위를 현시한다. [...] 그리하여 사동 어간은 비재귀성을, 그리고 피동 어간은 재귀성을 각각 지니게 되는 것이다. (65쪽, 밑줄 필자)

- (12) 가. 영이가 순이를 업었다.
 나. 철수가 영이에게 순이를 업히었다.
 다. 순이가 영이에게 (순이를→Ø) 업히었다.

피동이나 사동은 (11가)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새로운 주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12나)와 같은 사동문의 경우 (12가)의 '본동사문'에는 없는 비재귀적인 주어 '철수가'가 도입된 것을 말하고, (12다)에서는 재귀적인 주어 '순이가'가 도입된 것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11나)와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동과 사동의 통사론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11다)에서도 명백히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주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드러낸다. 비재귀적인 주어를 도입하는 것과 재귀적인 주어를 도입한다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12나, 다)에서 보더라도, (12나)에는 '순이를'과 같은 목적어가 있으나, (12다)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12다)에는 '순이를'이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야만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이 된다. 그러나 보통의 피동문에 원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목적어가 있다는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박양규(1978)에서 피동사와 사동사의 문제가 형태론적으로만 다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통사론적인 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11다)의 밑줄 친 부분에는 "사동 어간"이나 "피동 어간"과 같은 말이 눈에 띤다. 이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성이 형태론적 차원의 문제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11)에서 형태소 '-이'를 도입하는 방식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파생 접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른바 "선어말 어미"와 같은 "굴절" 형태를 표시하는 형식에 가깝다.

이와 관련되는 다른 언급은 다음과 같다.

- (13) 가. 우리는 이 형태를 그 자체의 주어를 가지는 어떤 동사의 표면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박양규(1978:68))
 나. 이희승(1956)에서 제기된 바 '있->-이-'의 어원론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13가)는 피동 사동의 접사 ‘-이’를 기저에서는 통사적 존재인 어떤 서술어(그 서술어는 (13나)에 암시되어 있다)의 표면형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기저에서 피동사와 사동사가 저대로의 어휘적 온전성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아주 조심스러운 논의를 통한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피동사와 사동사는 파괴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하자.

(14) 피사동 접사의 동일성 가설과 어휘 파괴

피사동 접사의 기능적 동일성을 가정하는 논의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어휘적 온전성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박양규(1978)적인 논의는 김한곤(1982)에서 좀더 본격화된다. 피사동의 표현 형태 ‘-이’는 이제 완전히 하나의 서술어로 취급된다. ‘-이’는 ‘CAUSE(=be the cause of)’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상정된다. ‘-이’를 상위문의 서술어로 하는, 내포문을 가진 동일한 기저 구조에서 표면의 두 가지, 사동문과 피동문을 분화시키는 것은 변형 절차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적지 않은 논의에서 우리는 때로 피동과 사동의 접사를 굽절 접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어떤 것으로 상정하는 태도를 보게 된다. 안상철(1985:22)에서도 ‘-이’, ‘-히’ 등의 접사는 ‘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어 굽절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동재(1992)의 논의에서도 굽절은 V-I-USI-ESS-ESS-KEYSS-TE-와 같이 도식화되고 있다. 이들이 ‘-이’ 자체를 굽절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피동과 사동의 ‘-이’를 동사와 같이 취급하는 방식은 다시 휘트먼[Whitman] · 한[Hahn](1988)에서도 되풀이된다. 이러한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정곤(1995)에서도 피동의 ‘-이’는 통사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피동과 사동이 통사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다시 강명윤(1997)에서 계속된다. 피사동의 ‘-이’는 이번에는 촘스키(1995)에 상정된 바와 같은 vP-구조에 나타나는 경동사 v에 부착된 형태로 상정된다. ‘-이’가 완전한 동사로 취급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피사동 접사 ‘-이’를 독립된 서술어처럼 취급하지 않은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국어에 v 경동사와 같은 전혀 아무런 음성 형식도 갖추지 못한 추상 동사를 설정하는 것이나, 국어에 동사 인상과 같은 추상적인 이동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언어 현실을 떠난 것이다.

사동사와 피동사가 그 고유의 어휘적 특수성을 가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이기동(1975, 1976가, 1976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고, 근래에는 박연미[Park](1991)에

서도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피동과 사동의 접사가 최현배(1937)에서 특수하게 ‘보조 어간’의 하나로 다루어진 외에는, 우리 문법의 전통도 피동사와 사동사를 파생어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인식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 (15) 가. 사동사와 피동사는 그 기능 의미적 특성을 달리한다.
- 나. 사동문과 피동문은 문장 구성의 요소와 형식을 달리한다.
- 다. 피동 접사와 사동 접사의 목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피동과 사동을 하나로 설명하려는 기도는 야심에 찬 기도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지만, 그 노력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차이가 (15)에 보인 바와 같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이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도가 어휘의 파괴를 수단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는 의심할 여지없이 고유한 기능 의미적 단위이다.

3.2.4. 부정법 논의와 어휘 파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어에는 두 가지 유형의 부정문이 있다. 하나는 서술어 앞에 단순히 부정소를 놓는 단형 부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 아니하다/못하다/말다’를 이용하는 장형 부정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행해지는 어휘 파괴는 그 동안 잘 주목되지 않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하다, 못하다’의 ‘-하다’가 부당하게 독립적인 어휘 항목처럼 취급되는 것은 분명 어휘 파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에 생성 문법이 도입되어 부정법 논의가 시작된 박순함(1967) 아래 ‘하다’ 문제는 올바른 취급을 받아 본 일이 오히려 드문 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16) 가. 아기가 잠을 자 {아니, 못} 는다 (기저 규칙(Base Rule)에 의하여 Neg가 선택될 때, 박순함[Park Kim](1967:62) 참조)
- 나. 아기가 잠을 자지 {아니, 못} 는다 (서술어 어간의 명사화, 박순함(1967: 62) 참조)

13) 주시경(1910:102~104)에는 ‘줄이-, 돋우-, 묵히-’와 같은 사동을 “제움이 남음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쓰이-, 걸이-, 접히-, 갑기-, 먹히-’ 등과 같은 것을 “남음[타동]이 제움 [자동]이 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아기가 잠을 자지 {아니, 못} 하는다 ('하-'-보충, 필수적, 박순함(1967:61)
참조)

(16)은 박순함(1967)에 제시된 장형 부정문의 기저 구조이다. 서술어는 어미도 없이 상정되고, 부정소(Neg)도 '아니, 못'과 같은 형식으로만 도입된다. 서술어 어간이 명사화함으로써 (16나)와 같은 형식이 되고, 다시 '하-'-보충이 행해져 (16다)와 같은 형식이 된다. 주목되는 것은 (16다)에서 '하-'가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하다'를 하나의 온전한 어휘 항목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7) 가. VP → (Neg) Vs + Afv (송석중(1967:63) 참조, Vs는 동사 어간, Afv는
동사 어미를 뜻한다)

나. ki {SM, OM} ⇒ ci {SM, OM} / __ Neg (송석중(1967:63) 참조) (SM,
OM은 주어 표지와 목적어 표지를 말한다)

다. 이 규칙[우리의 (17가)]은 동사구 속에 있는 동사 어간을 명사화하여, 그
것을 새로운 동사 '하-'의 주어나 목적어가 되게 한 규칙 뒤에 놓여야
한다. (송석중(1967:63) 참조)

라. 비가 오기를 아니 한다. (송석중(1967:62) 참조)

마. 비가 오지를 아니 한다. (송석중(1967:62) 참조)

(17가)는 구절 구조 규칙의 하나이다. 동사구를 확장하는 규칙만을 보인 것이다. 부정소(Neg)가 팔호 속에 든 것은 그것이 수의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17나)는 부정소 앞에서 명사화소 '-기'가 '-지'로 되는 규칙이다. (17다)는 송석중(1967)의 기본 입장과는 다른 진술이다. 송석중(1967)은 장형 부정문의 십종 구조를 (17라)와 같이 본다. 따라서 "새로운 동사 '하-'"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¹⁴⁾ 동사 '하-'는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17가)에서 보면 동사 '하-'는 부정소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Neg + 하-'가 하나의 어휘적 단위라면, (17가)에서와 같이 부정소는 팔호 속에 있는데, '하-'가 그 밖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부정소 '아니'와 '하-'는 동일한 어휘 항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문장에 '하-'를 상정한 것이 이홍배(1970:178)이다. '하-'는 '아니'

14) (17다)의 명사화를 변형 규칙이라 할 때, (17가)와 같은 구절 구조 규칙이 그러한 변형 규칙 뒤에 놓인다는 것은 당시의 문법 모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없이도 모든 단일문에 상정된다. ‘아니’와 ‘하다’가 연결되는 것은 부정소-이송(Neg-Transportation)의 결과 Neg가 ‘하-’ 가까이 감으로써이다. 이에 대하여 오준규[Oh](1971:175)에서는 부정소-융합 접근을 제안한다. 부정소는 문 구조 밖에 있다가 동사와 융합하게 되고, ‘하-’가 첨가된다. 여전히 ‘하다’는 기저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초창기적인 논의에서는 어휘의 고유 가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던 사정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촘스키(1957)이 어휘부 없이 출발한 것은 당시의 어휘부에 대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문소 논의와 관련하여 보문자 선택의 중요성이 알려진 이후에도 어휘 항목의 고유한 가치를 소홀히하는 논의가 계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폴록[Pollock](1989)과 촘스키(1988)에서 비롯하는 Neg를 핵으로 하는 NegP가 국어에도 상정됨으로써 ‘하-’는 다시 부정소(Neg)와 분리된다. 한학성(1987), 윤종렬(1990), 윤정미(1990), 안희돈(1991), 박갑용(1992) 등에서 “‘하-’는 좌초된 시제를 부축하기 위한 허동사(한학성(1993:450) 참조)”이다. 한학성(1987), 박갑용(1992)에서 선행 동사의 어미 ‘-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이다. 이 점은 최현숙(1994)에서도 같다. 한학성(1993)에서는 ‘하-’의 자리가 정확하게 상정되어 있지도 않다. 한학성(1993:454)의 그림에서 ‘하-’는 시제 교점아래에 온다. 한학성(1987, 1993)에서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18) 가. 기저에서 Neg는 ‘하-’와 독립된 별개의 어휘 항목이다.
- 나. ‘하-’는 시제 요소를 부축하기 위한 허동사이다.
- 다. 선행 동사의 어미(한학성(1993)에서 이는 작용역 표지이다) ‘-지’를 선택하는 것은 ‘하-’이다.

(18나)와 같은 자격을 가지는 ‘하-’가 ‘-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시제 요소를 부축하기 위한다는 것은 흔히 나중에 도입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이 작용역 표지 ‘-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다. ‘-지 아니하다’를 고려할 때 ‘-지’와 ‘하-’의 거리도 문제된다. 윤정미(1990)에서 ‘-지’는 명사화소 [+N]로 상정된다. 그것을 보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와 같은 Neg이다. 그러나 ‘아니’가 왜 명사절을 보어로 요구하는가? 어휘의 가치를 소홀히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간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아니하다, 못하다’가 ‘-지’를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어에 나타나는 가장 소박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의 모든 이론적인 정교함이나 교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다. 이론적인 정교함이 어휘 요소의 파괴에서 얻어지거나 출발하는 것일 때 그 정교함은 공허한 것일 뿐이다.

(19) 가. 철수가 그림 그리기를 안 했다.

나. *철수가 그림 그리지를 안 했다.

(19가)는 결코 ‘아니’가 ‘-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보인다. ‘-기’ 명사절이 와도 별 다른 이상이 없다. 오히려 (19나)와 같이 ‘-지’가 오면 성립에 이상이 생긴다. ‘아니 하다’가 각각 별개의 어휘 항목일 경우이다. 장형 부정문의 ‘아니하다/못하다’는 단지 ‘-지’를 요구한다는 바로 그 특성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독립적인 어휘 항목의 가치를 가진다.¹⁵⁾ ‘-지’가 그 앞에 오는 것은 용언이 가지는 어휘적인 선택의 측면이다. 이를 달리 기술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역시 어휘 항목의 고유한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¹⁶⁾ ‘아니하다/못하다’ 사이에는 어떠한 어휘재로 개입될 수 없다. 이 비분리성은 어휘적인 공고성의 발현이다.

박순함(1967)에서 비롯하고 김동식(1980)에서 이어지고 다시 시정곤(1997)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없다, 모르다, 말다’에 대한 ‘안 있다, 못 알다, 안 하다’의 분해도 어휘 파괴의 또 다른 전형을 이루는 예이다. 이들이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론적인 해석상의 유사성일 뿐이다. 몇 가지 예만을 보기로 한다.

(20) 가. 나는 여기에 안 있다!

나. *나는 여기에 없다!

(21) 가. 요즘 아이들은 돈 귀한 줄 모르고 산다.

나. *요즘 아이들은 돈 귀한 줄 못 알고 산다.

(22) 가. 그를 만나지 말자.

나. *그를 만나지 안 하자.

15) 임홍빈(1987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명백히 지적하였다.

16) 서정곤(1993/1994:51~2 및 주 4)에서는 “모문 동사로 부사 ‘아니’를 통합시킨 ‘하-’가 오면 그 때도 보문은 ‘-지’에 이끌리는 CP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어휘 항목 ‘아니’에 표시되어야 할지 ‘하-’에 표시되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사 ‘하-’에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부사 ‘아니’를 통합시킨 ‘하-’가 오면”과 같은 표현은 ‘아니하다’를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와 ‘하다’가 따로따로 통사론에 도입된다.

- (23) 가. 나는 철수가 그를 만나지 말기를 바란다.
 나. 나는 철수가 그를 만나지 않기/아니 하기를 바란다.

(20가)는 가능해도 (20나)는 성립하지 않는다. 평면적으로 ‘안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다.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그 때에만 ‘안 있다=없다’가 성립한다고 할지 모른다. 그것은 동질성이 문자 그대로 성립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1가)도 (21나)와 같은 것이 아니다. (21나)는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이 아니다. (22가)와 달리 (22나)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말다’와 ‘안 하다’가 같을 수 없다. (23)에서는 ‘말기’와 ‘않기’가 같이 쓰일 수 있다. 각기 고유의 표현 가치를 가진다고 볼 때에만 온당하다.

‘아니다’를 기원적으로 ‘아니+이다’의 형성으로는 보는 것은 혹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아니’와 ‘이다’를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통사 단위로 설정하여 국어 문장의 통사론을 기술하는 것은 역시 어휘 파괴의 성격을 가진다. ‘이다’와 ‘아니다’의 어미 연결의 양상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구성의 제2의 명사구에 ‘이/가’가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의 어휘 선택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아니’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다’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¹⁷⁾

이제까지 우리는 몇 가지 통사적인 기술에 나타나는 어휘 파괴 현상을 검토하여 보았다. 어휘 파괴는 때로 물리적인 파괴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 분해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 것이나 문법 기술의 온전성을 해친다. 어휘의 온전성을 파괴하는 문법 기술이 온전한 것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밖에도 필요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휘 해체가 시도된다. 그러나 그 동기는 심각한 반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동기가 국어를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의미는 보편성을 띠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휘 해체를 하면 일반적인 문법 이론이 잘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어휘 해체를 하는 기본적인 동기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에서 국어는 국어가 아닌 것이 된다.

분명 우리는 방법론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어를 서구어처럼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7) 최근의 부정법 논의에서 이 점을 명백히 지적한 것은 오숙화(1994)이다. 전통 문법에서는 ‘아니다’를 ‘아니’와 ‘이다’로 나누어 본 일이 오히려 드물다.

3.3. 범주 설정의 문제

3.3.1. 생성 문법과 범주 설정

범주의 자의적인 설정은 생성 문법의 한 특징이라고도 할 만하다. 이론에 의하여 범주가 새로 태어나고, 이론에 의하여 범주가 제한되고, 이론에 의하여 범주가 없어진다. 언어학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범주가 사실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생기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선형적으로 주어진 범주라는 것이 있을 리 없다. 범주는 이론적 생성물이다. 그렇다고 어떠한 범주 이든 마음대로 만들어 작업을 해도 좋다는 것은 되지 못한다. 범주의 내용은 분명히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론에 의해서만 생겨난 범주라면 가상 범주일 뿐이다. 언어학은 가상 범주를 가지고 작업하는 학문이 아니다.

촘스키 문법에서 어휘 범주를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로만 한정하는 것과 같은 편의주의를 취하여 온 것은 아주 연원이 오래된 것이다(촘스키(1981:48)과 같은 것이 한 가지 예이다), 범주와 충위를 명시하지 않는 최근 촘스키(1994)적인 이론의 변모도 전혀 환영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해야 한다. 문법 기술이란 범주와 충위에 의한 문법적 현상의 일반화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이들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어휘 파괴도 어떤 측면 범주 설정과 관련되나, 위에서 다룬 문제는 여기서 제외한다.

3.3.2. 결정사구(DP) 가설의 문제

생성 문법에 결정사구(DP) 가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브레임[Brame](1981, 1982)이라 한다.¹⁸⁾ 이러한 가설은 페제츠키[Pesetsky](1982), 헬란[Hellan](1986), 애브니[Abney](1986, 1987), 후쿠이[Fukui](1986) 및 후쿠이 · 스피스[Fukui and Speas](1986) 등에서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시도되거나 채택되거나 응호되고 있다. DP 가설은 이미 촘스키(1994, 1995)에 도입되어 문법 기술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¹⁹⁾

18) 애브니(1987:78) 참조. 명사구의 핵을 명사가 아닌 결정사로 보는 것은 Montague 문법에서 이미 잘 확립된 사항이라고 한다.

19)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DP 가설은 NP 가 격을 가질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격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종래의 NP 범주를 DP 범주와 같이 상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DP 가설은 이제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되었다. DP 범주는 양동휘(1993, 1994, 1995)에도 등장하고, 또 윤만근(1996, 1997)에도 나타난다.²⁰⁾ 그러나 DP 가설은 절대로 끝까지 검증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어도 의심스러운 것이며, 필자가 보기엔 그것은 잘못된 범주이다. 무엇보다도 DP 가설은 서구어에서조차 등위 구조에서 주어-동사 일치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격 배당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²¹⁾ 먼저 일치 문제를 보기로 한다.

(24) 가. [[Das Kind] und [das Mädchen]] sind schön.(그 아이와 그 처녀가 예쁘다)

나. [[Der Poet] und [Novellen-dichter] ist Mein Onkel.(그 시인]이자 소설가는 나의 아저씨이다)

다. [[Der Poet] und [Tänzerin]] ist Meine Tante.(그 시인이자 무용가는 나의 아주머니이다)

(24가)의 동사 sind는 수의 일치를 보여 주는 것으로 그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²²⁾ 이 복수 정보는 [[Das Kind] und [das Mädchen]]이 실제의 두 대상을 지시한다는 사실에서 온다(헬비크[Helbig] · 부샤[Buscha](1987:355) 참조).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다. (24가)에 대하여 결정사를 핵으로 하는 결정사구를 상정한다면, 그 주어에 복수의 자질을 가지는 추상적인 DP를 상정해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25) *[e (중성, 복수, 1격) [[Das Kind] und [das Mädchen]]]²³⁾

등위 접속된 DP 구조의 핵에는 어떻든 복수의 자질이 가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독

20) 안희돈(1988), 윤종렬(1990), 박정섭(1992), 손영숙 외(1996)에서는 격조사나 보조사를 D(혹은 Del)로 상정하고 주로 격조사구를 DP라 하고 있으나, 그것은 애브니(1986, 1987)적인 의미의 DP는 아니다. 윤종렬(1990)에서는 본격적으로 애브니(1987)적인 기능 범주로서의 DP 분석이 도입되고 있으나, 격조사를 D로 보는 한, 그것은 DP 분석이 아니다. 단지, 격조사구나 보조사구를 기능 범주로 보고 있을 뿐이다.

21)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홍빈(1995)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경어 표현과 관련되는 다른 측면은 지금의 고려에서 제외된다.

23) 이 구조는 DP의 핵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다. DP가 다른 DP를 가지고 상위의 DP를 이를 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핵은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없다.

일어에는 다행히도 이 경우 중성의 복수 1격을 나타내는 정관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25)에 그러한 관사가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더 복잡한 경우는 (24나) (24다)와 같은 경우이다. (24나)는 [[Der Poet] und [Novellen-dichter]]가 실제로 한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 동사가 단수 일치를 보이는 것이다. (24다)도 [[Der Poet] und [Tänzerin]]이 실제로 단수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인 ‘ist’가 쓰인 것이다.²⁴⁾ 종래의 명사구의 핵을 D로 상정하여 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24다)의 경우만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26) 가. [[Der Poet] und [Tänzerin]]

- 나. [[Der(남성, 단수, 1격) Poet] und [e_i (여성 단수 1격) Tänzerin]]]
- 다. [e_i ((남성/여성), 복수, 1격) [Der(남성, 단수, 1격) Poet] und [e_i(여성 단수 1격) Tänzerin]]]

(26나)는 ‘der Poet’와 ‘(die) Tänzerin’이 성의 차이를 가짐을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26가)는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도 (25)와 같이 등위 접속된 전체 명사구를 대표하는 DP를 상정한다면, 그 핵은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을 나타내는 공범주 관사이거나 성 범주를 가지지 않는 공범주 관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관사는 독일어의 외현적인 관사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공범주 관사를 상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언어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언어에 대한 기술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부당하게 ‘결정사구(DP)’라는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후쿠이[Fukui] (1986)의 예를 다소 바꾸어 그 범주 표시를 자세히 하여 보기로 한다.

(27) 가. [DP [SPEC e] [D' [D 's] [NP the enemy [N' [N destruction] [PP [P of] [the city]]]]]]]

- 나. [DP [SPEC e] [D' [D 's] [NP the enemy [N' [N destruction]



[PP [P of] [the city]]]]]

24) 여기서도 수의 일치와 관련되는 현상만을 문제삼기로 한다.

- 다.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 라. the city's destruction by the enemy

(27가)는 (27나)의 기저 구조이다. DP의 핵은 D이며 그 위치에 상정된 것은 's이다. DP의 지정어(SPEC) 위치는 비어 있다. 핵 명사 destruction이 가지는 모든 논항은 NP 속에 모두 상정된다. 후쿠이(1986)적인 설명의 하나는 NP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the enemy는 격을 가지지 못하므로, 격을 받기 위하여 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된 것이 (27다)이다. (27라)는 이를바 명사구 내적인 피동 변형으로 NP 속의 보어인 the city가 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설명된다.

문장과 명사구 사이의 평행성을 추구하는 입장에는 명사구 안에서의 피동 변형은 평행성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성의 측면에서 결함을 가진다. 이는 애브니(1987)에서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나, 애브니(1987)은 (27라)와 같은 예에 크게 이끌린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28) 가. yesterday's destruction by the enemy
- 나. Mexican destruction of the city
- (29) 가. John's refusal of the proposal
- 나. *the proposal's refusal by John
- (30) 가. John's study of Music
- 나. *Music's study by John

(28가)는 시간 표시어가 속격 성분으로 나타난 예이다. 시간 표시어가 이동에 의하여 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적어도 그것은 문장과 명사구에 있어서의 평행성의 원리를 어긴다. (28나)는 NP 속의 행동주가 형용사로 나타난 경우이다. 형용사의 쓰임은 NP 속의 행동주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명사구 내부에 이동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없다. (29)는 단순 명사에서의 보어의 이동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며, (30)은 파생 명사구에서의 보어의 이동도 마찬가지임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명사구 안에서의 피동 변형은 없는 것이거나 적어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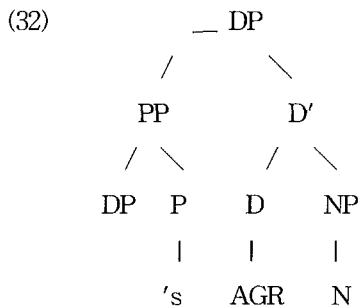
명사구를 DP로 상정하고 DP의 핵을 D로 상정하는 결정사구 가설의 치명적인 약점은 격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²⁵⁾ DP 논의는 (27가)와 같은 명사구만을 따로

떼어서 그 핵을 따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명사구가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the enemy*가 인상된 뒤의 구조인 (27나)를 다음과 같이 가져오기로 한다. 그것이 주어나 목적어로 쓰인 예를 더 보이기로 한다.

- (27) 나'. [DP[SPEC the enemy_i] [D' [D 's] [NP t_i [N_i destruction] [PP [P of] [the city]]]]]
- (31) 가. [DP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was terrible.
 나. I hated [DP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31가)는 (27나')이 주어 위치에 나타난 것이며, (31나)는 그것이 목적어의 위치에 나타난 것이다. 주어이든 목적어이든 그 핵은 이미 D인 's이다. 핵의 격 자질이 구범주에 삼투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31가)의 주어 DP의 격은 속격이 된다. 그러나 주어 DP가 속격을 가진다는 논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주어가 AGR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주격을 배당받는다고 하여 보자. 이 주격은 속격을 핵으로 하는 DP에 배당되게 된다. 주어 DP는 속격과 주격의 두 격을 가지게 된다. 있을 수 없다. (31나)에서도 격의 종류만 달라질 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목적어 DP는 속격인데, 다시 목적격을 받아야 한다.

애브니[Abney](1987:81)○ (27나)와 같은 구성에 대하여 상정하고 있는 구조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25) 안희돈(1997:57 및 주 11)에서는 명사구가 격을 받기 전에는 D의 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D의 투사가 격의 투사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추측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애브니(1987)적인 DP 범주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결론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32)에서 D는 DP의 핵이다. 그 밑에 AGR은 그것이 일치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AGR이면 AGR이지, 그것이 왜 D 밑에 오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D가 AGR이면 (32)에서 DP는 AGRP이다. D를 AGR이라고 함으로써 애브니[Abney](1987)에서는 불가사의하게 D와 's를 통합시킨 것과 같은 범주가 탄생한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the와 's는 하나의 범주로 합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한국어에서 속격 조사 '의'와 지시사 '이, 그, 저'가 하나의 범주로 뮤일 수 없는 것과 같다. (32)에서 속격은 D인 AGR에 의하여 배당된다.

(32)와 같으면 혹 주어 DP나 목적어 DP가 주격이나 목적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D가 바로 속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D가 주격이나 목적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속격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32)에서 만약 D가 속격을 배당하는 요소라면, 그것이 다시 주격이나 목적격을 받는다는 것은 스토퀸[Stowell](1981)의 '격 저항 원리'를 위배하게 된다.

DP 가설은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의존하여 언어를 기술한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정사구 가설은 절대로 끝까지 검증된 것이 아니며, 언어 현실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는 범주이다.

3.3.3. 일치소와 굴절의 문제

풀록(1989) 및 촘스키(1988) 이후 국어에도 일치소(AGR)를 상정하는 것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도중에 촘스키(1995)는 AGR를 버리고 있다. 이제 국어의 문법 기술에서도 곧 AGR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불을 보듯한 일이다. 언어에 따라 다른 범주가 있을 수 있고 또 대체로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범주가 있을 수 있다. AGR은 결코 보편적인 범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구어에 대하여 촘스키가 설정하는 범주에 따라,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국어에도 그것을 설정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 기술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촘스키(1988) 이전, 결속 이론의 확대를 시도한 양동휘(1983:172)에서는 국어에 AGR과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²⁶⁾ 양동휘(1983)에서 국어의 AGR에 관한 언급을 가져오면 (33)과 같다. 관련 예를 (34)에 보이기로 한다.

26) 비교적 이론 시기에 국어에 AGR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강영세(1986)이다.

(33) 양동휘(1983)과 국어의 AGR 결여

가. 한국어와 일본어와 같은 언어에는 AGR이 없다. 이는 단순히 이들 언어에는 AGR 형태소가 없기 때문이다. (양동휘(1983:172, 주 7)

나. AGR을 결한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시제문 조건(Tensed-S Condition)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큰주어(SUBJECT)에 의한 ‘지표 안의 같은 지표(i-within-i)’ 접근성 조건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양동휘(1983:172))

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자료[아래의 (34)와 같은 예를 말함]는 이들 언어가 AGR을 결하고 있다는 우리의 최초의 가정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없이는 이들 자료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동휘(1983:173-4), 밑줄 필자)

(34) 가. 그들이은 [그들이 서로i, *i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한다. (양동휘(1983)의 예, 문법성 판단도 그에 의함)

나. 그들이은 [서로i의 아이가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양동휘(1983)의 예)

양동휘(1983)에 의하면, (34가)는 교호사(혹은 상호사) ‘서로’가 내포절 주어와 동지표된다. 양동휘(1983)에는 이들 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결속 이론의 구체적인 적용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33다)만으로는 (34가)에 AGR이 없다는 가정이 어떻게 유효하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다. (34가)에서, ‘서로’가 그것이 속한 내포문에서 만 그 선행사를 가져야 한다면((34가)의 문법성 판단은 이를 말한다), (34가)는 AGR을 가정하는 것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AGR을 가정해도 그 지배 범주는 내포문으로 제한되며, 양동휘(1983)에서와 같이 성분-지휘 ‘최소 큰주어(minimal SUBJECT)’의 성분-영역(c-domain)이라는 것으로 그 영역을 제한해도 그 지배 범주는 내포문으로 제한된다. 차이가 없다. (34나)는 영어와 같으면 촘스키(1981)의 ‘지표 안의 같은 지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예이다. AGR이 있다고 가정해도 ‘서로’의 선행사는 상위절의 ‘그들’이 될 수 있다. AGR이 없다고 가정해도 내포절에서 최소 큰주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상위절의 ‘그들’이 선행사가 될 수 있다. 차이가 없다. 적어도 (33다)는 약화된다. (34가, 나)가 과연 AGR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현상인지 의심스럽다.

국어가 AGR를 가지지 않는 언어라는 언급은 통제 문제를 다룬 양동휘(1985)에서 다시 되풀이된다.

(35) 양동휘(1985)와 국어의 AGR 결여

- 가. 주어 자리를 지배하는 것은 AGR이라는 가정 아래,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이 AGR이 없는 언어에서 주어 자리는 항상 지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 (양동휘(1985:401))
- 나. 양동휘(1983)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에는 결속 이론과 관련하여 AGR이 없음을 보였다.
- 다. 이들 언어에는 주어-동사 일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들을 이른바 PRO-탈락 언어라고 할 수 없다.

(36) 가. *[우리가 PROarb 속이는 것]-은 나쁘다. (양동휘(1985:401) 참조)

- 나. [PROarb 사람을 속이는 것]-은 나쁘다. (양동휘(1985:399) 참조)

국어에서 주어 자리는 지배를 받지 않는 자리이므로((35가)에 의한다), (36나)와 같이 PRO가 나타날 수 있고 자의적 지시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목적어 위치는 그렇지 않다.²⁷⁾ (36가)는 자의적 지시 해석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이 촘스키의 이론을 국어에 적용하기 위한 야심찬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만에 하나 국어를 희생시킨 것은 없었나 반성해 보아야 한다. 국어에 사실로 AGR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국어에 AGR이 없다는 가정을 세워 그것으로 촘스키(1981)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과는 단지 문제의 접근 방식만이 다른 것은 아닌 것이다. 국어적인 직관의 문제는 그러한 차이가 빚어내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두 가지 예만을 보기로 하자.

(37) 가. 그 남자 둘 i은 [그 여자 둘j이 서로j, ?i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 나. 인간이 [e] 속이는 것은 나쁘다.

(37가)는 (34가)와 평행적인 예이며, (37나)는 (36가)와 평행적인 예이다. (37가)에서 ‘서로’는 ‘그 남자 둘’을 선행사로 택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7가)가 다소 이상을 가진다면, ‘그 여자 둘’을 주체로 하여 ‘그 남자 둘’을 교호적인 관계로 묶는 의미 관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호사 대신 재귀사를 넣으면 그 성립은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된다. 이것이 AGR의 존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²⁸⁾ (37나)

27) 양동휘(1985:401)에서는 담화 결속(discourse-bound)의 경우, 목적어에도 PRO가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때는 자의적 지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28) 이 이론의 약점이나 국어적인 예에 대해서는 임홍빈(1987)을 참조하기 바란다.

는 총칭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경우 목적어 대상은 자의적 지시 해석을 가질 수 있다. 목적어 위치는 지배받는 위치라는 데도 이렇다.

결속 이론 및 통제 이론과 관련하여 국어에 있어서의 AGR의 결여와 그 설명력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하자.

(38) AGR의 결여에 대한 가정과 문법 기술의 설명력

- 가. 국어에 AGR을 가정하지 않으면, 지배 범주(혹은 결속 범주)가 하위절에 만 국한되지 않게 되어 결속 현상이 잘 설명된다.
- 나. 국어에 AGR을 가정하지 않으면, 주어 자리가 지배되지 않아 통제 현상
이 잘 설명된다.

이제 국어에 대하여 AGR을 상정한다면, (38)을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국어에 AGR을 상정한 일련의 논의들, 가령 최현숙(1986, 1988), 한학성(1987, 1993), 윤종렬(1990), 유동석(1993), 양동희(1994가) 및 이선우(1994) 등에서 이 문제는 주목되지 않고 있다. AGR 상정의 기본적인 동기는 주격 배당과 관련된다. 영어의 주격이 AGR에 의하여 배당되듯이 국어에서도 AGR에 의하여 배당된다.²⁹⁾ 국어는 영어와 아주 비슷해진다. 한학성(1987:73)은 성, 수, 인칭의 복합체만이 AGR이 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으)시-’가 주어의 존대 자질을 되찾게 하므로, 그것을 AGR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국어에 AGR이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으)시-’가 주어를 존대한다는 것이 왜 국어에 AGR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윤종렬(1990: 35)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매개 변항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어는 인칭과 수의 AGR이 있는 데 대하여, 프랑스 어와 아랍어에는 인칭과 수 및 성의 AGR이 있고, 한국어에는 존대의 AGR이 있다는 것이다. 국어는 유형적으로 영어와 대등한 위치에 서는 언어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언어의 보편성에 관한 지지가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국어는 영어와 거의 완전히 같은 것이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가정 때문이다.

(39) 가. 국어에는 AGR이 있다.

- 나. 국어에 주어-동사 일치소는 ‘-(으)시-’이다(혹은 복수 표지 ‘들’이다).³⁰⁾

29) 국어에서 AGR의 설정에 반대한 초기의 논의로는 강영세(1986)이 주목된다.

30) ‘들’을 ‘-(으)시-’와 함께 [+Agr]의 실현으로 본 것은 최현숙(1987)이다. ‘들’의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들’은 이미 관련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 다. 국어의 주어 위치는 AGR에 의하여 지배된다.
 라 국어의 주격은 AGR에 의하여 배당된다.

(39)에 의하면 국어와 영어의 다른 점은 (39나)의 ‘-(으)시-’라는 어휘재밖에 없다. 그러나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국어와 영어와는 더 중요한 측면에서 차 이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39)를 볼 때, (39) 중 가장 중요한 것은 (39가)이다. 국어에 AGR이 있다고 가정하자마자 국어는 영어와 동일한 언어가 되기 위한 순서를 밝기 시작한다. 그러나 과연 국어에는 AGR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40) 가. 나의 눈에도 저 멀리에 있는 아버님이 보인다. (박양규(1975) 참조)
 나. *나의 눈에도 저 멀리에 있는 아버님이 보이신다.
 다. *너는 아버님이 보이시니?
 (41) 가. 저기 너희 선생님이 온다.
 나. 저기 너희 선생님이 오신다.
 (42) 가. 아버님의 말씀이 떨리신다.
 나. ”아버님의 다리가 기시다.

(40가)는 아주 중요한 예이다. 주어가 존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술어에 ‘-(으)시-’가 쓰일 수 없다. ‘-(으)시-’가 쓰이는 경우, 그것은 (40나)와 같이 ‘나’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40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이다. (40가)의 ‘아버지’은 단순히 보이는 대상일 뿐이다. ‘-(으)시-’의 문제가 경험 표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41가)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인데도 ‘-(으)시-’가 쓰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특별히 문법성에 이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는 또래들끼리의 담화에서는 (41가)가 흔히 쓰인다. 실제로 그렇다. 이들에게 (41나)와 같은 용법을 강요하는 것은 문법이 아니다. (42가)는 주어가 ‘말씀’인 경우 ‘-(으)시-’가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며, (42나)는 주어가 ‘다리’인 경우 ‘-(으)시-’의 쓰임이 이상함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소박하게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으)시-’를 일치소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의 예들을 소박하게 관찰한다면, ‘-(으)시-’ 문제가 결코 일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³²⁾ 일치 현상처럼 보일 뿐이

31)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85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 이것을 일치 현상으로 보려는 것은 서구어 문법에 의한 영향 때문이며, 국어를 서구어와 같이 기술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42)와 같은 예들에 대하여 유동석(1994:234)는 이에 자질 공유 현상을 상정하였다. 피소유 명사가 분리 불가능한 것일 때, 소유주의 자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님’과 ‘말씀’이 분리 불가능한 것이면, ‘말씀’이 ‘아버님’의 자질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버님’과 ‘말씀’이 ‘아버님’과 ‘다리’보다 더 분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말씀’은 따로 기록해 둘 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을 경험하는 ‘아버님’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동안의 AGR 논의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아버님은 약점이 잡히셨다’와 같은 예를 보면 간접 존대나 자질 공유에 의한 설명력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약점’까지 존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9다, 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AGR이 나타나지 않는 위치에도 그것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주어나 주격은 ‘-(으)시-’가 없는 문장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AGR 논의는 이렇게 가정하는 것에 별다른 저항을 느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으)시-’가 나타나지 않는 위치에 ‘-(으)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어의 문법 형태는 그 자체 고유한 기능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형태 기능의 고유성 조건’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³²⁾

(43) 형태 기능의 고유성 조건

국어의 문법 형태는 그 자체에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진다.

이에 부수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상정할 수 있다.

(44) 형태 가정 금지 조건

그것이 있다고 가정할 만한 필연적인 증거나 흔적이 없는 한, 그것이 없는 곳에 그것이 있다고 가정하여 문법을 기술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들이 문법 기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음 예에서 보기로 한다.

32) 시정곤(1992) 및 최소 이론에 입각한 윤만근(1997:277~279)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볼 수 있다.

33) 이 문제는 임홍빈(1997)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45) 가. 아버님이 간다.

- 나. 아버님__ 가신다.
- 다. 아버님께서 가신다.
- 라. 상감마마__ 듭시오.

(45가)에는 ‘-(으)시-’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으)시-’는 없는 것이다. (45가)에 대하여 ‘-(으)시-’가 있다고 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으)시-’는 없어도 그 자리는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으)시-’가 없으면 그 자리도 없는 것이다. ‘-(으)시-’는 스스로 그 존재성을 가지는 것이고 스스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으)시-’가 없어서 ‘아버님’을 존대하지도 않는데, ‘-(으)시-’가 있을 때와 똑같이 주격은 배당된다는 논의는 형태가 없이도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45나)에는 주격 조사가 없다. 그런데도 주격은 배당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가정하면, (45나)의 표현 가치는 (45다)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45다)는 될 수 없다. (45나)에는 ‘께서’가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리가 (45나)에도 적용된다. 거기에 ‘이’가 있다고 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45나)는 그 자체에 고유한 표현 가치를 가지는 독립적 존재이다.³⁴⁾ (45라)에는 절대로 주격 조사가 쓰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46) 가. 어서 이것 좀 드셔.

- 나. *나는 집에 가__ 싶다.
- 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 라. 나는 집에 갈까 싶다.

(47) 가. *나는 그것을 먹__ 보았다.

- 나. (*나는 넥타이를 매__ 보았다.
- 다. 나는 넥타이를 매어 보았다.
- 라. 나는 넥타이를 매고 보았다.

34) 이는 안병희(1965나)에서의 ‘부정격’ 논의를 상기시킨다. 형태 표지가 없이 통합만으로 격이 표시되는, 주격, 대격, 속격의 경우, 일반적인 통합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표지의 존재와 결여에 대한 가치의 차이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좀더 강력한 것이다. 형태가 없으면 거기에 그것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6가)에 완전한 ‘-(으)시-’는 없다. 그러나 ‘-셔’는 있다. ‘-셔’에는 ‘-(으)시-’가 들어 있다고 가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46나)에는 ‘가__’ 뒤에 아무 것도 없다. ‘가__’ 뒤에 무엇이 있다고 가정하여 그것이 성립한다고 기술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46다, 라)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형태가 쓰여야 한다. (47가)에는 ‘먹__’ 뒤에 아무 것도 없다. 여기서도 ‘먹__’ 뒤에 무엇이 있다고 가정하여 그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47나)의 ‘매__’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³⁵⁾ 거기에 정말로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면 (47나)는 어떠한 성립 성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47나)가 (47다)와 같은 의미로 성립하는 것이라면, ‘매__’ 뒤에는 보상적 장음화가 있는 것이다.³⁶⁾ 어떠한 일이 있어도 (47나)를 (47라)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39나-라)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며, (43)의 형태 기능의 고유성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궁극적으로 (39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으)시-’의 쓰임이 문장 속의 다른 요소에 대하여 통사적으로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동석(1993, 1994, 1995)은 허웅(1958, 1963나, 1975)에 따라 중세어의 주어 일치소의 하나로 다시 ‘-오/우-’를 상정하였다. 따라서 중세어에는 주어 일치소가 두 개나 있는 것이 된다. 하나는 ‘-(으)시-’이며, 다른 하나는 ‘-오/우-’이다. 두 가지 예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48) 가. 내 므수미 이 존호니[존호+오+니] (법화경언해 2: 216~7)

나. 부텨 므수미 平等호샤[평등하+시+어] (금강경언해 18)

(48나)에서 ‘平等호샤’의 ‘-시-’는 현대 국어와 같다. ‘-시-’가 일치소라면 중세어에서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런데 허웅(1958, 1963, 1975)에 의하면 ‘존호-’의 ‘-오-’도 주어가 1인칭일 때 나타난다. 이에 의하여 유동석(1993, 1994, 1995)는 ‘-오/우-’를 주어 일치소의 하나로 보았다. 중세어에는 주어 일치소가 둘이나 된다. 무엇 때문에 주어 일치라는 순수히 추상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가 둘이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서구어적인 일치란 무조건적인 것이다. ‘-오/우’가 1인칭 어미라면 그것은 주어가 1인칭이면 무조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48가)의 주어는 1인칭이 아니다. ‘내 므슴’은 1인칭이

35) 고영근(1997:83)에 제시된 예의 하나이다. 영의 이형태가 어떤 제약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뚜렷한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언급이 있다.

36) 이에 대해서는 이병근(1976=1979)이 참조된다.

아니다. 유통석(1994)는 이에도 자질 공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미론적인 설명이 부가되면 그것은 이미 통사적인 일치가 아니다.

(43)의 형태 기능의 고유성 조건에서 볼 때, ‘-(으)시-’가 주어 일치소가 된다는 것과 ‘-오/우-’가 주어 일치소가 된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으)시-’는 높임의 기능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오/우-’는 순수히 통사적인 기능만을 행하는 추상적인 요소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 예로 본다면, ‘-오/우-’를 가진 예와 안 가진 예는 다음 예에서 ‘가노라’와 ‘간다’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49) 가.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나. ^{??}간다,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다. 나 간다, 애들아. 내년에 다시 보자.

(49가)와 달리 (49나)는 이상을 가진다. 그러나 (49다)는 이상이 없다. ‘가노라’를 의고적인 어법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³⁷⁾

다음에 ‘전초’를 뒤에 가지는 관형 구성의 예 몇을 보이기로 한다.

(49) 가. 이 多寶 佛이 寶塔에 겨샤 양네 十方에 노니샤문 이 經 爲호신 전초시니
라 (법화경언해 4: 140a)

나. 王子 | 讀歎호수와 니록샤터 衆生 濟度호물 爲호산 전초로 無量億世예사
그제사 成佛을 得호시니라 호시니 (법화경언해 3:92b-93a)

다. 大雄猛世尊이 諸釋엣 法王이시니 우릴 어엿비 너기시논 전초로 佛音聲을
주시니 (법화경언해 3: 64b)

라. 衆生이 法 中에 佛道 因緣 심구문 能히 法藏 디니신 전초로 한 類 힘 니
브리로다 (법화경언해 4: 55b-56a)

허웅(1958, 1963, 1975)에 의하면 관형절의 ‘-오/우-’는 인칭 활용이 아니라 대상 활용이다. 관형절의 피수식 명사가 관형절에서 목적어로 환산될 수 있을 때 쓰이는 것으로 성격지어진다. (49)는 어떤 예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전초’는 위의 예에서 관형절 내부의 목적어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49나)의 ‘爲호산’이나 (49다)의

37) 임홍빈(1980)에서 ‘-오/우-’는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너기시논’의 ‘-오/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1인칭 어미인가? (49)의 예는 이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49가)의 ‘爲호산’의 ‘샤’나 (49나)의 ‘爲호신’의 ‘시’는 자유 변이를 하는 이행태란 말인가?³⁸⁾ 허웅(1958, 1963, 1975)에 의하면, 관형절에는 1인칭 어미로서의 ‘-오/우-’가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관형절에 1인칭 어미가 쓰이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49다)의 ‘너기시논’과 같은 예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기로 한다.

(50) 가. ‘너기시논’의 ‘-(으)시-’는 주어를 높인다.

나. ‘너기시논’의 ‘-오/우-’는 1인칭 어미이다.

다. 대우법에서 1인칭은 흔히 존대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50다)는 적어도 (50가, 나)가 그대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말해 준다.

중세어의 ‘-습-’을 허웅(1954, 1961, 1963, 1975)에서는 객체 존대로 보았고, 안병희(1961)에서는 주체 겸양으로 해석하였다. 어느 입장이건 ‘-습-’은 구체적인 의미 기능을 가지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을 유동석(1993, 1994, 1995)과 같이 목적어 일치소로 해석할 때, 그 기능은 한 차원 높은 것이 되어 순수히 통사적인 기능을 가지는 추상적인 존재로 변하게 된다.³⁹⁾

일치란 서구어 문법에 전형적인 문법 현상이다. 우리 문법 연구가 많든 적든 서구적인 문법 연구에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서구적인 편향성을 띠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며, 국어를 영어와 똑같은 언어로 만드는 것도 삼가야 한다. 최근 촘스키(1995)는 다시 보편 문법에서 AGR을 제거하고 IP로 복귀하고 있다 (양동휘(1996:48~49), 윤만근(1997:277) 참조). 이제 우리 문법에서도 AGR을 제거한다면, 촘스키(1995)를 따르는 것이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치소는 국어 문법을 크게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국어에 일치소를 가정하는 논의들이 일치소 범주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사-인상(V-Raising) 절차가 상정되어 동사의 어간이 일치소와 융합하게 되고, 그들의 융합이 다시 인상되어 가령 시제소와 융합하고, 그 융합이 다시 인상되어 어말 어미와 융합하게 된다. 이 과정을 간단히 보이기로 한다. ‘새 언니가 오셨다’를 예로 들어 보기로

38) 고영근(1997)에서는 특히 이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9) 최현숙(1995)에서는 ‘뵈/뵙-, 섬기-, 드리-, 여쭈-’와 같은 것이 목적어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휘 선택의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한다.

- (51) 가. [[[[[새 언니]]가 오-]-시-]-었-]-다]
- 나. [[[[[새 언니]]가 t-]-오시-]-었-]-다]
- 다. [[[[[새 언니]]가 t_i-]-t_j-]-오시었-]-다].
- 라. [[[[[새 언니]]가 t_i-]-t_j-]-t_k-]-오시었다].

(51가)는 동사-인상이 적용되기 전의 구조를 보인 것이다. (52나)는 동사 어간 ‘오-’가 일치소에 융합된 구조를 보인 것이며, (52다)는 ‘오시-’가 다시 시제소 ‘-었-’과 융합된 것을 보인 것이며, (52라)는 ‘오시었-’이 ‘-다’와 융합한 것을 보인 것이다. 이 이동은 왜 일어나는가? 영어의 경우와 같이 형태론적인 이유 때문으로 설명된다. 국어에서 동사 어간은 홀로 쓰일 수 없다. 어미를 가져야 한다. 어미도 홀로 쓰일 수 없다. 앞에 다른 요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동사 인상과 융합의 동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51가)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조사나 어미가 구적인 단위 뒤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어의 선문미 형태나 문미 형태가 형태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통사적인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70년대 중반에 와서야 주목된 것이다. ‘문장 종결사(Sentence Ender)’를 상정한 석경징(1975, 1976)을 비롯하여, 문미 형태나 선문미 형태를 보문자(COMP)나 굴절소(INFL)로 나누어 처리한 일련의 논의들이 이에 속한다.⁴⁰⁾ 조사나 문미 및 선문미 형태가 통사적 존재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52) 국어 문법 요소의 통사적 성격

국어의 조사와 문미 형태 및 선문미 형태, 즉 국어의 문법 요소는 통사적 구 성 뒤에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형태론적 존재가 아니라 통사적 존재이다.

문미 요소나 선문미 요소가 통사적인 존재라는 (52)를 일단 받아들인다면, 형태론적 동기에 의하여 이들이 이동이나 융합을 경험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사적인 존재가 왜 형태론적인 동기에 의하여 움직이는가? 용언

40) 임홍빈(1984, 1987나), 서정목(1984, 1985), 한학성(1987), 안희돈·윤항진(1989), 윤정미(1990), 윤종렬(1990), 강명윤(1990), 안명철(1992), 박진호(1994) 등에서 채택되거나 암시된 방식의 하나이다.

의 어간에 어미가 연결되는 것을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온 것은 서구 문법의 영향이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물음, 그것은 국어가 형태론적인 굴절을 가지는 언어인가, 즉 활용이나 곡용을 가지는 언어인가 하는 물음이다. 우리 학교 문법은 용언의 활용을 인정하고 체언의 곡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어에서 활용이 확립된 것은 최현배(1930)에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현배(1930)에서 활용 범주의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시된 것은 분리성이다. 체언과 조사는 분리성을 가지나 용언과 어미는 분리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¹⁾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한 것은 언더우드(1890)라고 할 수 있다. 언더우드(1890)에서도 활용만이 인정되고 곡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곡용을 상정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는 곡용의 범주 체계가 정비되지 않는 데 있었다. 체언에 조사가 연결되는 것을 정연한 변화표로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같은 질문을 국어의 활용에 대하여 던질 수 있다. 국어에 활용 범주라는 것이 정연한 체계로 성립하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 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히 국어에는 활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활용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용언에 문법 요소가 결합된 것을 몇 개 정도 묶어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자명한 사실의 하나는 국어는 굴절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어 문법적인 의미에서 본래적 활용이라는 것을 국어에 설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53) 국어와 굴절

국어에 인구어적인 의미의 곡용이나 활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명백한 의미에서 국어는 굴절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문법 이론은 또 한번의 변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어휘 기능 문법이나 정보 기반 문법에서는 일찍부터 활용형을 어휘부에서 직접 도입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인데,⁴²⁾ 이제 촘스키의 생성 문법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촘스키에서는 활용형을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촘스키(1995)에 따라 동일한 방식이 양동희(1994가:189-192/1994나) 및 윤만근(1997: 272-274)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어의

41)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97)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42) 정보 기반 문법에 대해서는 장석진(1993)이 참고되고, 어휘 기능·문법에 대해서는 신수송·류수린(1995)가 참고된다. 신수송·류수린(1995)에서 활용 어미는 접사로 상정된다.

경우 굴절형을 어휘부에서 만들어 오는 것으로 가정하는 문법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문법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어의 특성을 크게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국어에는 원리적으로 굴절이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접검의 문제를 보기로 하자. ‘오시다’와 같은 예의 ‘-(으)시-’가 AGR이나 존경을 나타내는 기능 범주에 의하여 접검을 받는다고 하여 보자. ‘-(으)시-’가 그것 자체인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접검해 준다는 것인가?

(43)에서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의 문법 형태는 고유의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 의하여 그 존재가 접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54) 국어의 문법 요소와 접검 절차

(43)과 같이 국어의 문법 요소는 그 자체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그 존재가 다른 요소에 의하여 접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3.4. 서술절 범주와 주제 문제

단일문으로 여겨지는 문장에 둘 이상의 ‘이/가’ 성분이나 ‘을/를’ 성분이 겹쳐 나타나는 현상은 실로 사실 자체에 있어서 국어학이나 언어학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 문장에 주어가 둘 이상이나 나타나는 것은 인구어 문법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좀처럼 명쾌한 해석이 얻어지지 않았다. 어떤 문법가는 이를 “국어학의 영원한 숙제”라고 표현한 일도 있다.⁴³⁾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이론과 방법이 동원되었고, 이에 의하여 실제로는 많은 문제들이 발굴되고, 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아직 밝혀진 것이 별로 없다거나 전혀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문법가도 적지 않다.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문법가도 있다. 우리 몸에 밴 것이 인구어 문법이기 때문에 인구어 문법으로 효과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유효한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태도의 결함이다. 중주어 현상은 일본어에도 나타난다. 그 해석법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 해결을

43) 이러한 표현도 문제 해결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를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는 비관주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그것은 어떠한 종류의 해결 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문제삼으려는 것은 이른바 중주어 현상을⁴⁴⁾ ‘서술절’을 내포절로 가지는 구조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법이 반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 학교 문법[1985, 1996]이 채택하고 있는 해석법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떠한 해석법 보다도 문제가 많은 해석법이 일반화되고 일반적인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술절이란 범주의 성립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은 이미 임홍빈(1974)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 문제점은 남기심(1986)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성기철(1985)에서는 ‘-(으)시-’ 논의를 위하여 서술절 분석을 다시 받아들였고, 최근 임동훈(1996, 1997)에서도 다시 ‘-(으)시-’ 논의를 위하여 서술절 분석을 받아들였다. 서술절은 ‘문장 술어’라는 이름으로 박병수(1973, 1982, 1983, 1988)의 일련의 논의와 GPSG적인 접근에도 도입되고 있으며, 첫 번째 명사구에 대한 초점 해석이나 ‘-에 관하여’ 해석에도 주목하고 담화 추상 서술어와 같은 것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문장 술어를 설정하는 이익환(1987)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서술절 분석이 채택되고 있다. 격 문제와 관련하여 임영재(1985)에서 채택되고 있는 구조도 원리적으로는 서술절 구조이다.

서술절 분석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첫눈에는 매우 형식적이며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강력한 이유이다. 그 결함이 단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임홍빈(1974)에서는 서술절이 다른 절과 달리 절 표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다른 절과 달리 서술절은 품사 상당의 절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서술절 분석은 기능이 다른 다양한 구성을 동일하게 다루는 결함을 가진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서술절’이란 말에서 ‘서술’이란 말이 흔히 듣는 말이기 때문에 혹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서술절’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주이다. 그것은 문장의 종류를 그 품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닌, ‘동사절’이나 ‘형용사절’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44) ‘중주어(multiple subject)’ 현상은 흔히 ‘이중 주어(double subject)’ 현상으로 불린다. 명명 자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진다. 문제의 요소가 ‘주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녕(1969)에서 이 문제에 처음으로 도입된 명칭은 ‘주격 중출’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문제의 요소가 주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중립적인 명칭은 ‘이/가’ 중출일 것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중주어’ 또는 ‘이중 주어’란 술어도 자유롭게 쓰기로 한다.

- (55) 가. 철수가 [동생이 예쁘다]
 나. [철수가 동생이 예쁨]-이 문제이다.
 다. [철수가 [동생이 예쁨]]-이 문제이다.
 라. [[철수가 [동생이 예쁘-]]]-ㅁ이 문제이다.

서술절 분석에 의하면 (55가)에서 ‘동생이 예쁘다’가 서술절이다. 그것이 ‘철수가’에 대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55나)에서는 무엇이 서술절인가? (55다)에서와 같이 ‘동생이 예쁨’이 서술절이 된다고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명사절이다. 절대로 서술절이 아니다. 이번에는 (55나)가 (55라)와 같이 분석된다고 하여 보자. ‘동생이 예쁘-’만이 서술절로 ‘철수가’에 대한 서술어가 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서술절은 서술절만으로 주어가 될 수 없다. 다시 명사화소에 의하여 명사화되어야 한다. 서술절이 다시 명사절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서술절이란 서술어가 이루는 절이란 뜻이 된다. 이를 동사절이나 형용사절 혹은 용언절과 같이 부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관련에 의한다. 그러나 명사절이라는 것이 그 서술어의 품사를 토대로 하는 명칭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 문미 형식이 ‘-ㅁ/음’이나 ‘-기’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는 것이지, 그 서술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명사절을 부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절의 이름을 붙이려면, 가령 (55가)에서 ‘동생이 예쁘다’는 ‘종결 어미절’이라고 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범주이다.

서술절이 절 표지를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나 서술절이 품사 상당의 명칭을 가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서술절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는 그 존재가 동기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술절은 바로 (55가)와 같은 예 밖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동기화해야 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동기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술절 분석이 포괄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56) 가. 철수가 키가 크다.
 나. 학생이 둘이 있다.
 다. 값이 백 원이 알맞다. (김광해(1983) 참조)
 라. 사장이 고민이 많다.
 마. 나는 음악이 좋다.
 바. 책이 읽기가 어렵다.

‘이/가’를 가진 제1 조사구와 제2 조사구의⁴⁵⁾ 의미 관계를 ‘전체-부분(예 (56가)), 부류-성원(예, 시계가 엘진이 비싸다), 유형-표시(예, 해가 뜨는 해가 멋있다), 총계-수량(예, (56나)), 피영향자-영향자(예, 내가 아버님이 아프시다)’와 같은 대소 관계(Macro-Micro Relation)로 유형화한 양인석(1972)의 대소 관계 유형에는 이상하게도 (56라-바)와 같은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소 관계라는 것이 경험적인 자료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이 아님을 뜻한다. 대소 관계설은 자료를 극히 제한하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것은 적어도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서술절 분석도 이와 다름없다. 관련 예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 가령 (56나)에서 ‘고민이 많다’는 서술절인가? 서술절의 성격이 명확하지 정의되지 않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서술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민이 많다’는 처소 논항(혹은 소유주 논항)을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처소 논항이 제1 조사구와 관련되므로, 제1 조사구를 서술절 속의 논항으로 끌어오면 그것은 이미 문장 전체이므로 서술절은 문장의 부분이 되지 않는다.

(56다)의 ‘음악이 좋다’나 (56라)의 ‘읽기가 어렵다’ 부분도 서술절(혹은 “문장 술어”)이라 하기 어렵다. 서술어의 논항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좋다’는 경험주역과 대상역을 요구하는데, ‘꽃이 좋다’에는 대상역밖에 없고, ‘읽기가 어렵다’에서는 ‘읽다’의 대상역 논항이 없다. 서술절이 온전한 논항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제1 조사구를 서술절 속으로 가져오면 논항 관계는 충족되나 서술절 해석은 이미 효력을 잃게 된다.

서술절이 그 자체에서 논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인정하자마자, 학교 문법[1985, 1996]은 보어 구문과 서술절 구문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이가 어른이 되다’나 ‘그가 어른이 아니다’에서 두 ‘어른이’ 성분은 보어로 취급되는 것인데, 제2 조사구와 서술어를 합하여, 논항을 갖추지 못한 서술절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술절 분석의 결함은 또한 중복적어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설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 (57) 가. 철수가 영희를 돈을 주었다.
- 나. 영희가 철수를 친구를 초대하였다.
- 다. 철수가 [영희를 [돈을 주었다]]]

45) 이를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은 조사구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조사구를 다시 격조사구나 보조사구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조사구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름이다.

(57가, 나)는 전형적인 중주어문이다. 이들은 ‘이/가’ 중출 구성이 아니므로, 서술절 분석이 이들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56)의 예들과 이들은 동조사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동질적인 원리에 의하여 해석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57가)를 (57다)와 같이 분석하여 ‘돈을 주었다’란 서술절이 ‘영희를’이란 목적어를 다시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돈을 주었다’는 전혀 절이 아니다.

따라서 서술절 분석은 절대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진지한 문법 논의가 그것을 토대로 다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서술절 분석이 가지는 의의도 잘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어를 국어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문장이 자기 안에 다른 절을 가지는 일은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며 국어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구어에도 국어와 같이 중주어 현상이 광범하게 존재해야 한다.⁴⁶⁾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다.

중주어문을 초점 구성으로 보려는 논의도 적지 않다. 김영희(1978/1988)도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입장이며,⁴⁷⁾ 윤혜석[Yoon] (1987), 김귀화(1988/1994), 윤종렬(1990) 등도 그러한 입장이다. 김영희(1978/1988:35)에서의 언급을 여기에 가져와 보기로 한다.

(58) 김영희(1978/1988:35)에서의 ‘이/가’

정보 초점을 표시하는 초점 표시(focus marker)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가’는 순수한 통사 관계의 표지로서 주어 되기 과정에 도입되어 문법적 주어를 표시할 뿐,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가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질문법(question test)’이라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주제나 초점 성분을 가려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도 질문법이다. 그

46) 김영희(1978/1988:32)에서는 영어에도 겹주어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예스페르센(1937)의 분리 주어(Split Subject)를 그 하나의 예로 들고 있고, there 구문의 예를 다른 하나의 예로 들고 있다. ‘She seems to run./This was considered a lie./She is sure to notice it.’와 같은 예가 분리 주어의 예이다. there에서는 수의 일치를 보이는 것이 동사 뒤에 있는 명사구이므로, there는 형식 주어이고 실질 주어는 따로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어처럼 중주어 구성이 광범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47) 김영희(1978/1988:35)에서는 ‘이/가’를 “정보 초점을 표시하는 초점 표시(focus marker)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가’는 순수한 통사 관계의 표지로서 주어 되기 과정에 도입되어 문법적 주어를 표시할 뿐,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러나 질문법이 주제나 초점을 가려내는 유효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질문 자체가 이미 정보 구조를 가지는 구성임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실제의 질문법에 고려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59) 가. 화자 A: **누가 키가 크냐?**
나. 화자 B: 철수가 키가 크다.
- (60) 가. 화자 A: 철수가 **무엇이** 크냐?
나. 화자 B: 철수가 키가 크다.
- (61) 가. 화자 A: 철수가 키가 **어떠냐?**
나. 화자 B: 철수가 키가 크다.
- (62) 가. 화자 A: 철수가 **누구를** 만났느냐?
나. 화자 B: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

(59가)가 주어질 때, (59나)에서 신정보(New Information)가 되는 것은 ‘철수’이다. (59나)에서 ‘철수’가 새로운 정보임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이/가’인가 물을 수 있다. 담화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가’라면, 원리적으로 새로운 정보에는 모두 ‘이/가’가 쓰여야 한다. 그러나 (61나)의 ‘크다’나 (62나)의 ‘영희’에는 그것이 새로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가’가 쓰이지 않았다. 적어도 ‘이/가’는 새로운 정보 표지가 아니다. 초점을 새로운 정보를 가진 성분이라고 한다면, ‘이/가’는 초점 표지도 아니다. 김영희(1978/1988)의 (58)의 결론은 이렇게 하여 열어진 것이다. ‘이/가’는 “초점 표시(focus marker)”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통사 관계의 표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흔히 ‘누가 키가 크냐?’와 같은 질문에서 ‘키가 크다’를 구정보 혹은 주어진 정보 혹은 알려진 정보로 취급한다. 담화 장면에 ‘화자, 청자, 철수, 영희’ 세 사람이 있다고 하여 보자. 아무런 선행 담화 없이 화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하여 보자.

- (63) 가. 화자 A: 누가 키가 크냐?
나. 화자 A: 누가 키가 크냐?
다. 화자 A: 누가 무엇이 크냐?
라. 화자 A: 누가 무엇이 크냐?
마. 화자 A: 누가 무엇이 크냐?

(63가)와 같은 경우, '키가 크다'는 구정보인가? '철수'와 '영희'가 발화 장면 속에 있으므로 그것은 구정보라고 할지 모른다. 그들은 모두 작은 사람들이라 하여 보자. 키가 큰 것은 상황 속에 절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의 키가 문제되는 것이 순수히 화자의 질문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보자. (63가)에서 '키가 크다'는 구정보라거나 주어진 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다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화자는 다시 (63나)와 같이도 물을 수 있다. '누가'를 물으면서 동시에 '키가'에 강세를 두는 경우이다. '누가'도 초점이고 '키가'도 초점이라고 해야 한다. (63다)는 '누구'와 '무엇'을 동시에 묻는 것이다. 둘 다 다 초점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누가'에 강세를 둘 수 있다. 의문사의 논리와 강세의 논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키가 크나?'와 같은 구문은 초점이나 주제를 가려내기 위한 구문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문제의 성격을 지닌다. 그 자체의 성격이 분명해져야 한다.

(63가)의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철수'와 '영희' 두 사람뿐일 때, 그 '누가'는 완전히 비한정적인가? 그렇지 않다. 누군지는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대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인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64) 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임금님이/*임금님은 살고 있었습니다.

나.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임금님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임금님은 공주가 있었습니다.

(64)는 담화의 서두 문장을 예들어 보인 것이다. (64가-다)와 같은 문장 앞에 주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는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64가-다)의 화자가 옛날 이야기를 하라면 흔히 하는 벼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논외로 하자. 그 경우 '한 임금님은'은 부적격하다. 어떤 인물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다른 인물과 대조시켜 도입하는 것이 부적격하기 때문이다. 거의 이것과 같은 정도의 부적격성이 (64나)와 (64다)에서도 검출된다. 주목되는 것은 (64나)이다. (64나)에서 문제의 부분을 다시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기로 한다.

(65) 가. 그 임금님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나. 여러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임금님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다. ”한 임금님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라. ”웬 임금님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65가)는 제1 명사구 앞에 지시사 ‘그’를 놓아 본 것이다. (65다)와 같은 예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성립이 자연스럽다. ‘그 임금님’은 신정보인가? ‘그’를 가진 성분이 어떻게 신정보일 수 있는가? ‘그 임금님’은 절대로 신정보가 아니다. (65나)에서도 둘째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다. '(그 중) 한 임금님'이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65라)와 같이 ‘임금님’이 한정적이 아닐 때 그 성립은 어려워진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66) 가. 담화 제1 문장: 철수가/*철수는 왔다.

나. 담화 제2 문장: 철수가/철수는 키가 크다.

(66가, 나)가 이어지는 담화라고 하여 보자. (66가)에서 ‘은/는’의 쓰임이 이상을 보일 뿐, (66나)에 ‘이/가’가 쓰여도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제1 문장에 쓰인 요소가 제2 문장에 쓰일 때 반드시 ‘은/는’이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66나)에서 ‘철수가’는 새로운 정보인가? 그렇지 않다.⁴⁹⁾ 그렇다면 (66나)에서 ‘철수가’를 초점으로 보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잘못된 것이다.

중주어 구성에서 제1 조사구를 초점 성분이라 하려면 적어도 그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새로운 정보로서의 초점 외의 다른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임홍빈(1972) 이후 서술절이라 하는 구성에서 제1 조사구를 ‘이/가’-주제로 보아 왔다. 아직 이것을 포기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가’-주제는 배타적 대립이라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 특성을 지니고 주제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표지인 것이다. 국어에는 서술절 구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주제를 가진 문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정적이라는 것을 아주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이/가’-주제는 한정적인 대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동일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자매 항목들을 배타적으로 제외한다는 의미가 작용한다.

‘이/가’를 주격 조사로 인식하고, ‘을/를’을 대격 조사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지배적인 문법 인식의 하나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이론을 국어에 새롭게 적용하려는 논의일수록 이러한 편향성을 보여 왔다. 그런데 그 동안 국어에는 매

48) 이정민(1992)에 의하면 이는 “한정성에의 육박”이란 개념이다.

49) 이효상(1987)이나 이인영(1997)에서는 담화 분석적인 입장에서 국어의 주제(이인영(1997)에서는 ‘화제’이다)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효상(1987)에 의하면 ‘은/는’은 주제 표지로서 ‘주제 전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번 새로운 이론이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중주어 현상이나 중목적어 현상은 항상 ‘이/가’는 주격 조사이며, ‘을/를’은 대격 조사라는 전제 아래 문제 해결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국어에서 모든 ‘이/가’가 주격 조사이며, 모든 ‘을/를’이 대격 조사라는 인식은 아무 데서도 보증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부정의 ‘-지’ 뒤에 나타나는 ‘이/가’나 ‘을/를’을 격조사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을 특히 강하게 보여 온 것도 그 같은 인식을 반영한다. ‘-지’ 뒤에 나타나는 조사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한 이홍배(1970) 이후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의 논의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전병쾌(1984)에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강명윤(1992)에서도 그렇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67) 가. 꽃이 예쁘지가 않다.
 나. 꽃이 예쁘지를 않다.
 다. *꽃이 예쁘지를 않는다.
- (68) 가. *철수가 학교에 가지가 않는다.
 나. 차가 가지가 않는다.
 다. 차가 가지를 않는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는 선행 용언의 품사에 따라 그 품사적 성격이 결정된다.⁵⁰⁾ 따라서 (67가)의 ‘않다’도 형용사이며, (67나)의 ‘않다’도 형용사이다. 선문미 형태를 취하는 방식이 형용사와 완전히 같다. (67다)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67나)의 ‘을/를’이 대격 조사라면, 형용사문에 대격이 쓰인 것이 된다. 그러나 국어에 형용사가 대격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적어도 (67나)의 ‘을/를’은 대격 조사가 아니다. 이번에는 (68)을 보기로 하자. ‘-지’ 뒤에 ‘이/가’를 가진 (68나)는 이상이 없으나, (68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가’가 격조사라면, 같은 격조사가 동일한 동사의 같은 구성에서 차별을 보일 리가 없다. (67가), (68나)의 ‘-지’ 뒤에 쓰인 ‘이/가’도 격조사는 아니다. 이들을 격조사로 보는 입장은 ‘-지’를 명사화소 ‘-기’로 보는 견해와 맞물려 있다. 명사화소 ‘-기’가 부정소 앞에서 ‘-지’로 변한다는 규칙을 세운 것은 송석중(1967)이나 성립할 수 없

50) ‘너는 자꾸만 어제 그가 왔었다고 하지만, 어제는 그가 집에 왔었지 않다’나 ‘어제는 철수가 집에 가겠었지가 않았다’와 같은 예를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는 문법가들이 많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아니하다’의 성격은 선행 용언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 외에, 선행 용언 구성의 의미론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 된다.

는 것이다. 구개음화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없고, 명사절의 논리도 이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67나)와 같은 예에서 ‘않다’를 형용사로 보면 그것이 명사절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67)이나 (68)의 ‘-지’ 뒤에 나타나는 ‘이/가’와 ‘을/를’은 절대로 격조사가 아니다. 그것은 순수히 통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에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진 의미론적 존재이다. 필자는 임홍빈(1972, 1974, 1987) 등에서 그것을 ‘이/가’-주제나 ‘을/를’-주제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⁵¹⁾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69) 가. 영희가 예쁘기가 양귀비 뺨친다.

나. 철수가 가기는 아주 갔다.

(69가)의 ‘예쁘기가’는 ‘예쁘기’가 ‘이/가’-주제화된 것이며,⁵²⁾ (69나)의 ‘가기는’은 ‘가기’가 ‘은/는’ 주제화된 것이다. 강명윤(1988:12-20/1992:11-16)에 의하면, (69나)와 같은 구성은 동사구-초점(VP-focus) 구성이다.⁵³⁾ 그러나 초점이라는 것을 신정보를 나타내는 성분이라고 하여 보자. (69가)에서 ‘예쁘기’라는 것이 신정보인가?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청자는 그 말만 듣고는 더 알게 된 것이 없다. ‘양귀비 뺨친다’를 듣고야 얼마나 예쁜지를 알게 된다. 알게 된 것이 있다. 무엇이 신정보인가? ‘양귀비 뺨친다’가 신정보이다. 신정보가 초점이라면 그것이 초점이다. (69나)에서도 ‘가기는’만 듣고는 청자가 더 알게 된 것이 없다. ‘아주 갔다’까지 들어야 그가 간 것이 임시로 간 것인지 영원히 떠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철수가) 가기는’이 초점인가? 그것은 절대로 신정보가 아니므로, 초점일 수 없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51) 이광호(1988)에서는 대격 주제와 같은 것도 설정하였다. 동사에 의하여 대격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는 ‘을/를’-주제를 말한다. 그러나 동사에 의한 격 부여가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 가 있다.

52) ‘주제화’란 용어는 술어 사용의 편의상 도입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변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53) 휘트먼[Whitman](1982)은 국어의 예와 평행적인 일본어의 예를 동사-초점(V-focus) 구성으로 보았다고 한다. 강명윤(1992:14) 참조. 강명윤(1988/1992)는 동사구 전체가 문제되는 것이라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문장 전체와 관련된다. 특히 문제로 부각되는 성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때로 용언만이 문제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 (70) 가. 학생은 둘이 선생님은 세 분에게 선물은 넷을 드렸다.
 나. 학생이 둘이 선생님을 세 분에게 선물을 넷을 드렸다.
- (71) 가. [학생은 둘]-이 [선생님은 세 분]-에게 [선물은 넷]-을 드렸다.
 나. [학생이 둘]-이 [선생님을 세 분]-에게 [선물을 넷]-을 드렸다.
- (72) 가. ??*[무슨 학생이 둘]-이 왔다.
 나. ??*학생이 [무슨 선생님을 세 분]을 도왔다.
 다. [학생으로 말하면 둘]-이 [선생님으로 말하면 세 분]에게 선물을 넷을 드렸다.

(70가, 나)가 국어에서 문법적인 문장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70가, 나)는 (71가, 나)와 같이 분석된다. 달리 분석할 방법이 없다. (71가, 나)에서 괄호 속에 든 ‘은/는’이나 ‘이/가’나 ‘을/를’ 성분은 동일 성분 속의 주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정성이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받아들일 때 괄호 속에 든 ‘은/는’이나 ‘이/가’나 ‘을/를’ 성분은 한정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언급 대상성(aboutness)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다. (72가, 나)는 한정성이 아주 약할 때 성분 주제 구성의 성립이 의심스러움을 보인 것이며, (72다)는 성분 주제에도 주제 도입 표현이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56다)를 다시 여기에 가져오기로 한다. 관련 예를 덧붙이기로 한다.

- (56) 다. 값이 백 원이 알맞다.
 다'. [값이 백 원]이 알맞다.
 다''. [값이 백 원]이 그 물건에 알맞다.

(56다)의 ‘알맞다’를 김광해(1983)에서는 계사의 일종으로 보았다. 그러나 (56다)에는 ‘이/가’를 가진 성분이 둘이 있다는 점만이 계사 구성적일 뿐, ‘알맞다’를 계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국어적인 직관에 크게 어긋난다.⁵⁴⁾ (56다)와 같은 구성만을 중심으로 ‘알맞다’를 두 자리 서술어로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알맞다’에는 ‘이/가’ 성분 외에도 (56다 '')과 같이 ‘에’를 가진 논항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성이 가진 어려움은 ‘값이 백 원이’의 ‘값이’를 성분 주제로 봄으로써 논리적인 결함 없이 해결될 수 있다.⁵⁵⁾ 성분 주제라는 국어에 가능하다고 해 보자. 우리는 주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편견에

54) 김광해(1983)에서는 ‘알맞다’뿐 아니라, ‘아니다, 되다, 나가다(값이 백 원이 나간다), 틀림 없다, 한가지다’ 등도 계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55)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홍빈(1996)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서 벗어날 수 있다.

(73) 가. 주제는 한 문장에 많아야 하나뿐이다.

나. 주제는 문두(文頭)에 나타난다.

다. 국어의 주제 표지는 ‘은/는’뿐이다.

라. 문중의 ‘은/는’ 성분은 주제가 아니라 대조(Contrast)를 나타내는 것이다.

(73가)는 인구어적인 주제론에서 온 편견이다. 인구어에는 국어와 같이 다양한 주제 표지가 없다. 한 문장에는 많아야 한 성분 정도가 특수한 표현법에 의하여 주제로 도입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어는 그렇지 않다. 제1 주제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에서 파생되는 제2 주제를 상정할 수 있고, 또 그에서 파생되는 제3, 제4 등의 다른 주제를 상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 학파가 전달 강도(CD=Communicative Dynamism)란 개념을 도입하여 전달 강도가 가장 낮은 성분을 주제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은 주제를 하나로만 고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주제나 초점을 가려내기 위한 질문법이 가지는 의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질문의 대상은 대체로 언제나 하나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에는 다양한 표지가 그 자체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주제를 도입한다. 주제는 전달 강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표현 목적에 지배를 받는다. 성분 주제를 인정하면 (73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한 문장에 하나 이상의 주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구노[Kuno] (1973)적인 편견으로 여겨지는 (73나)도 유지될 수 없고 (73라)도 유지될 수 없다. (70)~(71)의 괄호 속의 ‘이/가’나 ‘을/를‘이 성분 주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73다)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56마)를 보기로 하자.

(56) 마. 나는 음악이 좋다.

(56마)의 ‘좋다’는 강영세(1986)에서 ‘타동 형용사(tansitive adjective)’이다. 이익환 (1987)은 형용사를 자동적인 것과 타동적인 것으로 나누었는데, (56마)의 ‘좋다’는 타동적인 것에 속한다. ‘타동 형용사’와 다른 것이 아니다. 강명윤(1988)에서도 ‘좋다’는 ‘타동 형용사’이다. 그러나 통사적인 차원에서 타동적 형용사 범주를 상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어에서 목적어가 ‘이/가’로 표시된다는 것도 그 유례가 없

는 것이다. (56)에서 ‘음악이’라는 성분이 ‘좋다’의 대상역과 관련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상역이란 의미역(θ -role)이 통사적으로 반드시 목적어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강영세(1986)에서 ‘음악이’는 목적어이나 강명윤(1988:34/1992:25)에서 는 보어이다. 내용상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문장 성분의 확정에서 강영세(1986)에서 주목된 것은 주체 존대와 재귀사 관련 현상이다.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한다.

(74) 가. 김 선생님이 음악이 좋으시다.

나. 철수가 영희가 자기 누이 동생보다 좋다.

다. *나는 아버님이 좋으시다.(‘아버님’을 좋아하는 대상으로 높일 때)

라. *나는 아버님께서 좋다.(‘아버님’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일 때)

(74가)에서 ‘-(으)시-’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 선생님’이다. 강영세(1986)에 전제된 바와 같이 ‘-(으)시-’가 높이는 것이 반드시 주어 대상이라면, (74가)에서 주어는 ‘김 선생님’이다. 그러나 ‘-(으)시-’가 높이는 것이 반드시 주어 대상은 아니다.⁵⁶⁾ 이는 (40)과 관련해서 보인 바와 같다. ‘-(으)시-’의 쓰임은 어느 정도 의미론에 지배를 받는 현상이다. (74라)가 부적격한 것은 ‘아버님’이 대상역 논항이기 때문이다. (74라)에 보인 바와 같이 대상역을 가진 논항에는 ‘께서’도 쓰일 수 없다. 그것은 (74마)에 ‘께서’가 쓰일 수 없는 것과 같다.

(74나)에서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가 되는 것은 주어인 ‘철수’이다. 여기서도 재귀사의 선행사가 되는 것이 어느 경우에나 주어라면 (74나)에서 주어가 되는 것은 ‘철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귀사의 선행사가 되는 것도 반드시 주어만은 아니다. 재귀사의 쓰임은 상당한 정도로 의미론에 지배를 받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강명윤(1988:34/1992:25), 김세중(1994), 이홍식(1996) 등에서 새롭게 주목된 예는 ‘싫다’이다. 다시 몇 가지 예를 보이기로 한다.

(75) 가. 나는 영희가 싫다.

나. 나는 어둠이 싫다.

다. 나는 어둠이 두렵다.

라. 나는 자동차 매연이 싫다.

56)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85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57)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87나)를 참고하기 바란다.

마. ??나는 맑은 공기가 싫다.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75가)와 같은 예를 중시하는 논의들은 (75가)에서 ‘싫다’가 서술하는 것이 ‘영희’가 아니라 ‘나’인 것으로 본다. ‘싫은 것’은 ‘영희가’ 아니라 ‘나’의 심리적 작용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75나)와 같은 예를 보자. ‘어둠’ 자체에는 싫은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오직 ‘나’의 심리적인 작용만이 ‘싫은 것’을 느끼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공연히 싫어하는 경우이다. 심리적 상태라는 것이 대상과 관계 없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상 자체의 속성 때문에 관련 심리 상태가 유발되는 것이다. (75다)에서도 ‘어둠’이 어떤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75라)가 자연스럽고 (75마)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물론 (75마)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변덕의 문제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76) 가. 나는 영희가 혐오스럽다.

나. 나는 영희가 밉다.

(76가, 나)의 ‘혐오스럽다, 밉다’는 ‘싫다’와 거의 의미 특성을 같이한다. 여기서도 ‘영희’는 완전히 순진 무구하고 예쁜데, ‘나’의 심리 상태만이 ‘혐오스러움’이나 ‘미움’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도 만의 하나 결함이 있고 티끌이 있고, 극히 부분적으로라도 나의 미움이나 혐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주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77) 가. 나에게는 어둠이 싫다.

나. *나는 영희에게 싫다.(‘영희’가 내가 싫어하는 대상일 때)

다. 철수가/*칠수에게 학교에 간다.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제1 조사구는 (77가)에서와 같이 ‘나에게는’과 같이 바뀔 수 있다. 국어의 어떠한 주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없다. (77다)는 그러한 관련을 보인 것이다.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제2 조사구를 주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주어와 동질성을 보인다. (77나)는 제2 조사구에 ‘에게’를 쓸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제1 조사구가 의미론적으로는 비록 주어적인 기능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문법적인 관련에서 제1 조사구는 다른 주어가 절대로 가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 조사구를 주어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3.4. 통사론 연구의 반성과 전망

이제까지 우리는 국어에 대한 통사적 논의에서 결코 드물지 않게 목격되는 문제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결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데 힘을 모았다. 문제의 한 가지 측면은 어휘 파괴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의 측면은 범주 설정의 측면이다.

20세기 언어학이 어휘 파괴의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결함을 보인다는 사실은 촘스키 (1994)에 제시된 (2)와 같은 구조가 상정적으로 보여 준다. *this*를 *th-*와 *-is*로 분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인 변명을 두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형태 분석의 극히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형태 분석이란 적어도 더 나누어 의미를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this*를 *th-*와 *-is*로 분석하는 것은 음운 분석에 속하는 절차이다. 그것은 국어의 ‘그’를 ‘그’과 ‘-’로 분석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저’를 ‘저’와 ‘-’로 분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통사적 분석은커녕 형태적 분석도 되지 못한다. 사동사를 의미 원소로 나누는 어휘 해체에도 어휘 파괴가 들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려니와, 사동이나 피동의 접미사를 독립된 통사 단위처럼 취급하는 방식에도 어휘 파괴는 숨어 있는 것이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를 ‘아니’와 ‘하다’로 나누어 기술하는 어떠한 문법도 어휘 파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진지한 논의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휘 파괴가 시도된다. 그 동기는 국어를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이다. 어휘를 해체하여 의미 원소로 분해하면 어휘는 특이성, 고유성을 잃고, 보편성을 띠게 된다. 무슨 이론이든 잘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어휘 해체를 하는 기본적인 동기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에서 국어는 국어가 아닌 것이 된다. 국어는 영어나 다른 인구어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이 된다. 분명 우리는 방법론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어를 서구어처럼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범주 설정의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결정사구 가설의 허구성을 지적하였다. 종래의 명사구를 결정사구(DP)라는 새로운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생성 문법의 최근의 경향이기는 하나,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격 사실을 설

명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는 것이다. 성분과 성분과의 관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이러한 범주를 설정하고 마음편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우리는 국어에 일치소(AGR) 범주를 설정하는 견해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으)시-’가 정확하게 주어를 존재하는 것도 아니려니와 그것이 정확하게 주어를 존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주어 대상을 높이는 것이지 주어와의 형식적인 일치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어에 순수히 형식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형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국어 문법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국어의 문법 형태는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 통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형태론적 동기에 의하여 이동할 필요가 없다. 통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최소주의 문법에서와 같이 ‘-(으)시-’가 다른 요소에 의하여 점검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으)시-’는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에 의하여 문장에 등장하는 것이다.

서술절 혹은 문장 술어 분석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범주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무런 절 표지 없이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고 가정하자마자 그것은 국어 통사론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파괴한다. 서술절만이 절 표지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기술은 임의성을 벗어날 수 없다. 다른 절과 달리 서술절은 품사 상당의 절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결함으로 지적되었다. ‘서술절’이란 말에서 ‘서술’이란 말이 흔히 듣는 말이기 때문에 혹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서술절’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주이다. 그것은 서술어의 품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절의 이름으로 ‘동사절’이나 ‘형용사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촘스키(1994)는 나상(裸狀) 구구조(Bare Phrase Structure)와 같은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통사론이나 연산 체계에서 범주 표시도 하지 않고 통사적 층위 표시도 하지 않는 문법을 말한다. 그에서는 엑스-바 이론도 거의 다 제거된다(촘스키(1994:12) 참조). 이에 대한 양동휘(1996:9)에서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 (78) 가. 범주적 절점의 정보는 어휘 항목의 어휘 자질 복합체 중에서 형식 자질인 범주 자질에 있다. (양동휘(1996:9) 참조)
- 나. 최대 투사 범주의 정보는 구조적 형상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양동휘(1996:9) 참조)
- 다. 중간 투사 범주의 정보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함이 논증되고 있다. (양동휘(1996:9) 참조)

(78)은 촘스키(1994, 1995)이나 그가 선도해 온 20세기의 언어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의 목표는 분명히 문장을 생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문장을 생성하는 절차는 어휘 항목과 어휘 항목을 연결하면 그만이다. 거기에 특별히 그 어휘 항목의 범주가 표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특별히 통사적 층위가 표시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장만 이루어지면 그만이다.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 “나는 지금 ‘명사구’를 말한다.”와 같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범주와 층위를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면, 나상 구구조로써는 효과적인 통사적 기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문법은 문장을 생성하기만 하면 족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문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 자체를 입력해서도 문장은 생성시킬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사적 기술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밀한 통사 기술이 범주나 층위의 구별 없이 행해질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20세기의 언어학이 결함을 가진다면 그것은 생성 중심적 문법을 최선의 것으로 보는 데 그 근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문법 현상에 대한 정밀한 기술이지, 편법적인 생성이 아니다.

통사론 연구에는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당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동의 문제도 검토해 보려고 하였으나, 필자의 시간이나 지면이나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참고 문헌

- 간행위원회 편(1995), 한일 어학 논총 : 남학 이종철선생 회갑기념 논총, 국학자료원.
- 강명윤(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Ph. D. dissertation, MIT.
- 강명윤(1990), “GB 이론과 한국어 연구,” 주시경학보 6, 주시경연구소.
- 강명윤(1992), 한국어 통사론의 제문제, 한신문화사.
- 강명윤(1995), “현대 언어학 이론에 기초한 국어 통사론 연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창과(創科)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강명윤(1997), “한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 현상의 소형 구절구조이론적 접근,” 어학연구 33: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강영세(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한신문화사.
- 고영근(1974), 국어 접미사의 연구, 광문사.
- 고영근(1975), “현대 국어의 어말 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응용언어학 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고영근(1978), “형태소 분석의 한계,” 언어학 3, 한국언어학회.
- 고영근(1983), 국어 문법의 연구 : 그 어제와 오늘, 탑출판사.
- 고영근(1985), “문법론의 연구,” 고영근 편(1985).
- 고영근 편(1985), 국어학 연구사 : 흐름과 동향, 학연사.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 서술과 문법 체계, 일지사.
- 고영근 · 김완진 · 안병희 · 이병근 · 이익섭(1979), “국어학의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고영근 · 남기심(1985) = 남기심 · 고영근(1985)
- 고영근 · 이현희 교주(1986), 주시경, 국어문법, 탑출판사.
- 고창수(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국어학회.
- 교육부(1985/1991/1996),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참고] 학교 문법[1985], 학교 문법[1991], 학교 문법[1996]으로 지칭.
- 구노[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The MIT Press.
- 구노[Kuno, S.] 외 편(1985),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구현정(1989), “현대 국어의 조건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어국문학회 편(1989), 국어국문학과 구미 이론, 지식산업사.
- 권재선(1988), 국어학 발전사, 우글탑.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권재일(1989), “조사의 성격과 그 생략 현상에 대한 기술 방법”,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권재일(1991), “한국어 접속문 연구사”, 김방한 편(1991).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글리슨[Gleason, E.] (1955/1965),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김계곤(1996),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광해(1983), “계사론,” 난대 이웅백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보진제.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광해(1995), 어휘 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 김광해 · 김동식(1993), 국어 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김귀화(1988), “국어의 격 연구,” 한국어연구 14, 한국어연구회.
- 김귀화(1994), 국어의 격 연구, 한국문화사.
- 김규철(1980), “한자어 단어 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41,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 : 형태 · 통어론, 도서출판 박이정.
- 김동식(1980), 현대 국어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김동식(1994), “복합 명사를 찾아서,” 국어학 24, 국어학회.
- 김두봉(1916), 조선말본, 새글집.
- 김민수 편(1993), 현대의 국어 연구사, 서평학술자료사.
- 김방한 편(1991), 언어학 연구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봉주(1984), 형태론, 한신문화사.
- 김석득(1962), “형태소의 변이 형태소(allomorph)로의 분석,” 한글 129, 한글학회.
- 김석득(1991),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 현상,” 국어연구 7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승곤(1996), 현대 나라 말본: 형태론, 도서출판 박이정.
- 김승곤 편(1996),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도서출판 박이정.

- 김영석(1984), "Aspect of Korean Morphology," University of Texas, Doctoral dissertation.
- 김영석 · 이상억(1991), 현대 형태론, 학연사.
- 김영주(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김영희(1978), "겹주어론," 한글 162, 한글학회. 김영희(1988) 재록.
- 김영희(1980), "정태적 상황과 겹주어 구문," 한글 169, 한글학회.
-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텁출판사.
- 김영희(1989), "이론 수용과 통사론의 전개," 국어학 19: 국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 국어학회.
- 김용구(1989), 조선어 문법, 사회과학출판사.
- 김정대(1996), "국어 통사론 연구 반세기," 광복 50주년 국학의 성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정은(1995), 국어 단어 형성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창섭(1981), "현대 국어의 복합 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국어학회.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 김창섭(1992),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과 과제",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섭(1995), "광복 이후 국어 형태론의 성과와 전망", 광복 50년의 국학, 성과와 전망(광복 50주년기념 전국국학자대회 발표초록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한곤(1982), "CAUSE as the Deep Semantic Source of So-called 'Causative' and 'Passive': With Special Reference to Metaphorical Interpretation of the -i Morpheme in Korean," 어학연구 18:1, 서울대 어학연구소.
- 나이다[Nida, E.] (1949), *Morphology :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Second ed.,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남기심(1968), 구조 언어학의 형태소 분석 방법론에 대하여, 행정 이상현선생 회갑기념논문집.
- 남기심(1986), "서술절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신연구, 텁출판사.
- 남기심(1989), "국어학의 구미 언어 이론 수용의 역사", 국어국문학회 편(1989), 국어국문학과 구미 이론, 지식산업사.
- 남기심 · 고영근 편(1983), 현대 국어 문법, 계명대학 출판부.
- 남기심 · 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텁출판사.
- 남윤진(1996), 국어 조사의 문법적 지위, 울산어문학 11,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 람스데트[Ramstedt, G. J.] (1933), "The Nominal Postposition in Korean," MSFOu 67.
- 람스데트[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래드포드[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서정목 · 이광호 · 임홍빈 역(1983), 변형 문법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 리버[Lieber, R.] (1980),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MIT Doctoral dissertation.
- 마틴[Martin, S.] (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Baltimore.
- 매튜스[Matthews, P.] (1972), *Inflectional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매튜스[Matthews, P.] (1991), *Morphology :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Seco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무이스켄[Muysken, P.] · 램스다익[van Riemsdijk, H.] 편(1986), *Features and Projections*, Foris Publications.
- 문양수(1996), "언어학 연구 50년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50년 (I): 총괄 · 인문 · 사회과학, 서울대학교.
- 민병수 · 이병근 외 10인(1985), 국어 국문학 연구사, 우석.
- 바우어[Bauer, L.]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바이비[Bybee, J.]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박갑용[Park, Kabyong] (1992), *Light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Thae Hak Sa.
- 박기덕(1974), 국어의 $S \rightarrow S^{2n}$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연구소.
- 박동근(1997), "국어의 통사적 파생 접사 설정 논의에 대하여," 한글연구회 여름연구회 논문집, 한글연구학회.
- 박병수(1973),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Linguistics* 100.
- 박병수(1982),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 Revisit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한신문화사.
- 박병수(1983), "문장 술어 의미론: 중주어 구문의 의미 고찰," 말 8, 연세대 한국어학당.
- 박병수(1988), "Sentential Predicates in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An Analysis of Korean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Korean Linguistics* 5.
- 박순함(1967),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Negation in Korean," Ph. D. dissertation,

- U. of Michigan). Seoul: Paeg-Hap Publishing Co.
- 박승혁(1997), *최소주의 문법론*, 한국문화사.
- 박승혁[Park, S.-H] · 윤종렬[Yoon, J.-Y.] 편(1994), *Head Movement: The Interface Between Morphology and Syntax*, Hanshin Publishing Co.
- 박양규(1975), “존칭 체언의 통사론적 특징,” *진단학보* 40, 진단학회.
- 박양규(1978), “사동과 피동,” *국어학* 7, 국어학회.
- 박연미[Park, Y. M.] (1991), *Head Movement: Inflectional Morphology and Complex Predicate in Korean*, Hanshin Publishing Co.
- 박정섭(1992), “중주어와 중목적어,” *생성문법연구* 2:2, 한국언어학회 생성문법연구회.
- 박진호(1994), “선어말 어미 ‘-시-’의 통사 구조상의 위치,” *관악어문연구* 1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 구조”, *국어연구* 123,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창해(1964), *한국어 구조론: 형태소론 및 형태소 배합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백웅진[Baek, E.-J.] 편(1988), *Papers from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and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 브레임[Brame, M.] (1981), “The General Theory of Binding and Fusion,” *Linguistic Analysis* 7:3.
- 브레임[Brame, M.] (1982), “The Head-Selector Theory of Lexical Specification and the Nonexistence of Coarse Categories,” *Linguistic Analysis* 10:4.
- 블룸菲尔드[Bloomfield, L.] (1933), *Language*,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1990),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1996), 고등학교 문법. [참고] 학교 문법[1996]으로 지침.
- 서정목(1984), “의문사와 WH-의문 보문자의 호응,” *국어학* 13, 국어학회.
- 서정목(1987), “경남 방언의 의문문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목(1992), “지배와 결속 이론에 의한 국어 연구,” *국어학 연구* 백년사 I, 일조각.
- 서정목(1993), “한국어의 구절 구조와 엑스-바 이론,” *언어* 18:2, 한국언어학회.
- 서정목(1994), 국어 통사 구조 연구 I : 구절 구조, 의문법, 경어법, 서강대학교 출판부.
- 서정수(1971), “국어의 이중 주어 문제,” *국어국문학* 52, 국어국문학회.
- 서정수(1991),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 한국문화사.
- 서정수(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나무.
- 서태룡(1979), “국어 접속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0,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서태룡(1981), “문법 형태소 중심의 통사론 연구에 대하여,” *한국학보* 25, 일지사. 민병수 · 이병근 외 10인(1985) 재록.
- 서태룡(1988), 국어 활용 어미의 형태와 의미, 텁출판사.
- 석경정(1975), “Speech-act and Syntactic Regularity: A Study of Sentence Ender in Korean,” Ph. D. dissertation, U. of Texas at Austin.
- 석경정(1976), “The Syntax of Sentence Ender,” *Language Research* 1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셀커크[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MIT Press, Cambridge.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5),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참고] ‘학교 문법 [1985]’로 지칭.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1),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참고] ‘학교 문법 [1991]’로 지칭.
- 성기철(1985),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 성백인(1986), “언어학 연구 40년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40년 (I): 총괄 · 인문 · 사회과학, 서울대학교.
- 손영숙[Shon, Y.-S.] · 홍영예[Hong, Y.-Y.] · 홍경선[Hong, K.-S.] (1996), “The Functional Category IP in Korean Reconsidered,” *생성문법연구* 6:2, 한국언어학회 생성문법연구회.
- 송석중(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인디아나대학 박사학위논문.
- 송철의(1977), “파생어 형성과 음운 현상,” *국어연구* 38,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송철의(1983), “파생어 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12, 국어학회.
- 송철의(1985),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 송철의(1990/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 송철의(1992), “생성형태론”, 고영근 · 성광수 · 심재기 · 홍종선 편(1992), 국어학 연구 백년사(1), 일조각.
- 송철의(1997), “국어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양학* 2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송철의 · 이남순 · 김창섭(1992), 국어 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스캘리스[Scalise, D.] (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Dordrecht.
- 스토웰[Stowell, T.] (1981), “Origin of the Phrase Structure,” Ph. D. dissertation, MIT.
- (이기용 · 나병모 편역(1988).
- 스펜서[Spencer, A.] (1991), *Morphological Theory*, Basil Blackwell, Oxford.
- 시바타니[Shibatani, M.] (1973), “Lexical versus Peripherastic Causatives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9.

- 시바타니[Shibatani, M.] (1975), "On the Nature of Synonymy in Causative Expressions," *어학연구* 11: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시바타니[Shibatani, M.] (1976), "Relational Grammar and Korean Syntax," *어학연구* 12: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시정곤(1993/1994),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 시정곤(1995), "핵 이동과 '-이/답/히/같-'의 형태 · 통사론," *생성문법연구*, 한국언어학회 생성문법연구회.
- 시정곤(1997), "국어의 부정 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 국어국문학회.
- 신수송(1991),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Reconsidered," *어학연구* 27:4,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신수송 · 류수린(1995), 어휘 기능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현숙(1982), "목적격 표지 '를'의 의미 연구," *언어* 7:1. 한국언어학회.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아로노프[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Cambridge.
- 안명철(1996), "어미와 어미소," 이기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안병희(1961), "주체 겸양법의 접미사 '-습-'에 대하여," *진단학보* 22, 진단학회.
- 안병희(1965가), "문법론," 국어학 개론, 수도출판사.
- 안병희(1965나), "부정격(Causus Indefinitus)의 정립을 위하여," *동화문화* 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남기심 · 고영근 · 이익섭 공편(1975) 재록.
- 안병희(1985), "문법사의 연구," 고영근 편(1985).
-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안병희 · 이광호(1990), 중세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안상철[Ahn, S.-C.] (1985),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한신 문화사.
- 안상철(1990), "생성 형태론의 발전과 현안 문제," 주시경학보 5, 주시경연구소.
- 안성호(1993), *Korean Quantification and Universal Grammar*, 태학사.
- 안희돈(1997), "영어의 명사구와 일치소," *생성문법연구* 7:1, 한국언어학회 생성문법연구회.
- 안희돈[Ahn, H.-D.] · 윤항진[Yoon, H.-J.] (1989),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edited by S. Kuno et al.
- 안희돈[Ahn, Hee Don] (1988), "Preliminary Remarks on Korean NP," 백옹진 편(1988).

- 안희돈[Ahn, Hee-Don] (1991), *Light Verbs, VP-Movement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알렌[Allen, M.] (1978), "Morphological Investigations," University of Connecticut, Doctoral dissertation.
- 애브니[Abney, S. P.]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Ph. D. dissertation, MIT.
- 양동휘(1983), "The Extended Binding Theory of Anaphors," 어학연구 19: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양동휘(1985), "On the Integrity of Control Theory," *Proceedings of NELS 15*.
- 양동휘(1993), "A Minimalist Approach to Quantification," 생성문법연구 3:2, 한국언어학회 생성문법연구회.
- 양동휘(1994가), "The Minimalist Theory and Argument Structure," 생성문법연구 4:1, 한국언어학회 생성문법연구회.
- 양동휘(1994나), 문법론, 한국문화사.
- 양동휘(1996), 최소 이론의 전망, 한국문화사.
- 양인석(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백합출판사.
- 양인석(1974),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어학연구 10: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언더우드[Underwood, H. G.](1890), *한영문법: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3책, 텁출판사.
- 연재훈(1986), "한국어 동사성 명사 합성어의 조어법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숙화(1994), "현대 국어 부정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준규[Oh, Choon-Kyu](1971), "Aspects of Korean Syntax: Quantification, Relativization, Topicalization, and Negation,"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Hawaii.
- 왕문용 · 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유동석(1993/1995), 국어의 매개 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 유동석(1994), "한국어의 일치," 생성문법연구 4:2, 한국언어학회 생성문법연구회.
- 윤만근(1996), "자질 유인 이론에서의 중주어 구조," 생성문법연구 6:1, 한국언어학회 생성문법연구회.
- 윤만근(1997), 최소 이론, 한국문화사.

- 윤정미(1990), "Verb Movement and the Structure of IP in Korean," *어학연구* 26: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윤정미(1996), "Verbal Coordination in Korean and the Checking Approach to Verbal Morphology," *언어* 21:4, 한국언어학회.
- 윤종렬[Yoon, Jong-Yurl] (1989), "On the Multiple 'ka' and 'lul' Construction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1989),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2,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윤종렬[Yoon, Jong-Yurl](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Hanshin Publishing Co.
- 윤혜석[Yoon, James Hye-Suk] (1987), "Some Queries Concerning the Syntax of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2,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이건수[Lee, Keon Soo](1990), "Biclausal Analysis of the So-Called Double Object Construction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6.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이광정(1987), 국어 품사 분류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한신문화사.
- 이광정(1992), "품사론," 고영근·성광수·심재기·홍종선 편(1992), 국어학연구 백년사(1), 일조각.
- 이광호(1988), 국어 격조사 '을/를'의 연구, 텁출판사.
- 이기동(1975), "Lexical Causatives in Korean," *어학연구* 1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기동(1976가), "Arguments against Lexicalization with Reference to Deadjectival Causatives in Korean,"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 이기동(1976나), "한국어 과동형 분석의 검토,"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논총 9,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기문(1995), "Remarks on the Study of Word-Formation,"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3, edited by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Hanshin Publishing Company.
- 이기용·나병모 편역(1988), 구구조의 생성, 한신문화사.
- 이남순(1988), 국어의 부정격과 격표지 생략, 텁출판사.
- 이동재[Lee, Dong-Jae] (1992), "Korean Verb Inflectional Paradigm *V-I-USI-ESS-ESS-KEYSS-TE-*," *Korean Linguistics* 7.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이병근 · 김창섭 · 채완 편(1993), 형태, 태학사
- 이상태(1988), 국어 접속 어미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석주(1989), 국어 형태론, 한샘.
- 이선우(1994), “Verb Movement and Adverbials,” 박승혁 · 윤종렬 편(1994).
- 이성범[Lee, Sung-Bum](1990), “The Scope of Some Inflectional Elements in Korean Coordinate Constructions,” *Korean Linguistics* 6.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이승녕(1961), 중세 국어 문법, 을유문화사.
- 이승녕(1963), “경어법 연구,” 진단학보 25 · 26 · 27 합병호, 진단학회. 이승녕(1972) 재록.
- 이승녕(1972), 국어학 연구, 형설출판사.
- 이승옥(1973), 국어 문법 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이승옥(1996), 국어 형태사 연구, 태학사.
- 이익섭(1965), “국어 복합 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 이익섭(1973),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적 기능,” 어학연구 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익섭(1982), “현대 국어의 반복 복합어의 구조,”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이익섭 · 임홍빈(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이익환(1987),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분석,” 말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인영(1996), “‘주제’와 ‘화제’: 기존 화제 개념에 대한 재고,” 어학연구 3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재인(1994), “국어 파생 접미사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1973/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 D. dissertation, Indiana U./범한서적주식회사.
- 이정민(1989), “(In)Definites, Case Markers, Classifiers and Quantifier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1989),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이정민(1990), “주제별로 훑어 본 서울대 언어학 40년: 통사론 · 의미론 및 음운론의 공시적 연구,” 인문논총 2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초점,” 국어학 22, 국어학회.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 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필영(1994), “속격 및 수량사구 구성의 격 충돌에 대하여,” 남천 박갑수선생 회갑기념논문집, 태학사.

- 이현규(1995), 국어 형태 변화의 원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현희(1989), “국어 문법사 연구 30년(1959-1989),” 국어학 19, 국어학회.
- 이홍배[Lee, H. B.]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범한서적 주식회사.
- 이홍식(1996),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상[Lee, H. S.] (1987), “Discourse Presupposition and the Discourse Function of the Topic Marker *nin* in Korean,” ms., reproduced b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이희승(1955), 국어학 개설, 민중서관.
- 이희승(1956), “존재사 ‘있다’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논문집 3, 서울대학교.
- 임동훈(1996), “현대 국어 경어법 어미 ‘-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임영재(1985), “The Syntactic Nature of the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구노 외 편 (1985).
- 임홍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국어연구회.
- 임홍빈(1974),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임홍빈(1976), “부사화와 대상성,” 국어학 4, 국어학회.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 임홍빈(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기능 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26, 일지사.
- 임홍빈(1983), “국어의 ‘절대문’에 대하여,” 진단학보 56, 진단학회.
- 임홍빈(1984),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억양,” 말 9, 연세대 한국어학당.
- 임홍빈(1985가),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임홍빈(1985나), “현대의 {-삽-}과 예사높임의 ‘-오’에 대하여,” 선오당 김형기선생 팔칠기념 국어학논총, 창학사.
- 임홍빈(1985다), “{-시-}와 경험주 상정의 시점,” 국어학 14, 국어학회.
- 임홍빈(1985라), “형태,” 송민 외 11인(1985), 국어국문학 연구사, 우석.
- 임홍빈(1987가),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호(87년 가을), 국어연구소.
- 임홍빈(1987나),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임홍빈(1987다), “국어의 명사구 확장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임홍빈(1992), “생성 문법의 도입과 전개: 표준 이론과 초기의 확대 표준 이론을 중심으로,” 국어학 연구 백년사 I, 일조각

- 임홍빈(1995), “결정사구 가설의 문제점,” 간행위원회 편(1995).
- 임홍빈(1996), “양화 표현과 성분 주제,” 이기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임홍빈(1997), “국어 구조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21.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 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
- 장석진(1993), 정보 기반 한국어 문법, 도서출판 언어와 정보.
- 전병쾌(1984), 한국어 부정 구조의 분석, 한신문화사.
- 전상범(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 정승철(1995), “광복 50년 국어학 연구사,” 한국학보 78, 일지사.
- 정열모(1946), 신편 고등 국어 문법, 한글문화사.
- 정원수(1992), 국어의 단어 형성론, 한신문화사.
- 젠슨[Jensen, J.] (1990),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Amsterdam.
- 조남호(1988), “현대 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85,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조의연[Cho, Euiyon] (1988), *Some Interactions of Grammar and Pragmatics in Korean*, Hansihnn Publishing Co.
- 조의연[Cho, Euiyon] (1991), “INFL의 구분 위치에 따른 INFL 매개 변인 논의의 문제점 들,” 언어 16:1, 한국언어학회.
- 조재옥[Cho, J. O.] · 모간[Morgan, J.] (1988), “Case and Coordination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5.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조지현[[Joh, J.] · 박수혁Park, S.] (1993), “Verb Raising, Negation, and Copy Theory in Korean Coordinate Structures,” S. Kuno et. al. eds.(1993),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 주시경(1906), 대한 국어 문법.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3책, 탑출판사.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판,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4책, 탑출판사.
- 주시경(1914), 말의 소리, 신문관.
- 채 완(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국어학회.
- 채 완(1979), “화제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채 완(1986), 국어 어순의 연구, 탑출판사.
- 촘스키[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Mouton, The Hague.
- 촘스키[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Cambridge.
- 촘스키[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 촘스키[Chomsky, N.] (1988),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MIT Working Papers* 10, MIT.

- 촘스키[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umber 5.
- 촘스키[Chomsky, N.] (1995), *Minimalist Program*, The MIT Press.
- 최남희(1995), 고대 국어 형태론, 도서출판 박이정.
-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연희전문학교 문과연구집 제1집: 조선어문연구,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최현배(1959), 김고 고친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현배(1971), 우리말본, 네번째 고친판, 정음사.
- 최현숙[Choe, Hyon-Sook](1986), "AGR, Control and Multiple Identical Case Construction," ms., MIT. 한학성(1993) 참조.
- 최현숙[Choe, Hyon-Sook](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A Transformational Approach*,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최현숙[Choe, Hyon-Sook](1994), "An Iterative I-Projection Analysis of Inflection," 박승혁 · 윤종렬 편(1994).
- 케인[Kayne, R.] (1993), "The Antisymmetry of Syntax," ms., Graduate Center, CUNY.
[참고] 양동희(1994나).
- 콤리[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페제츠키[Pesetsky, D. M.] (1982), "Paths and Categories," Ph. D. dissertation, MIT.
- 폴록[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3.
- 하치근(1987/1989), 국어 과생 형태론, 남명문화사.
- 하치근(1995), "국어 조어론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한샘연구 7·8, 한글학회.
- 학교 문법[1985]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5)
- 학교 문법[1991]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1).
- 학교 문법[1996]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1996).
- 한학성(1987),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Hanshin Publishing Co.
- 한학성(1989), "Nominative Assignment in Korean," 어학연구 25: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한학성(1993), "한국어의 AgrP와 NegP," 언어 18:2, 한국언어학회.
- 할레[Halle, M.] (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 Formation," *Linguistic Inquiry* 4.

- 허 응(1954), “존대법사,” *성균학보* 1. 허응(1963나) 참조.
- 허 응(1958), “삽입 모음고,” *논문집* 7, 서울대학교. 허응(1963나)에 “서기 15세기 국어의 인칭·대상 활용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다시 실림.
- 허 응(1961),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 *한글학회*, 허응(1963) 및 김종운 편(1984) 재록.
- 허 응(1963가), 언어학 개론, 정음사.
- 허 응(1963나), 중세 국어 연구, 정음사.
- 허 응(1975), 우리 옛 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허 응(1989), 16세기 우리 옛 말본, 샘문화사.
- 허 응(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헬란[Hellan, L.] (1986), “The Headedness of NPs in Norwegian,” 무이스켄[Muysken, P.] · 립스다익[van Riemsdijk, H.] 편(1986).
- 헬비크[Helbig, G.] · 부샤[Buscha, J.] (1987), *Deutsche Grammatik : Ein Handbuch für den Ausländerunterricht*,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 홍종선(1989),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 *국어학* 19: 국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 국어학회.
- 후지사와 후미또(1996), 현대 한국어의 형태론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후쿠이[Fukui, N.] (1986), “A Theory of Category Projection and Its Applications,” Ph. D. dissertation, MIT.
- 후쿠이[Fukui, N.] · 스피스[Speas, M] (1986), “Specifiers and Projectio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8, MIT.
- 휘트먼[Whitman, J.] (1982), “Configurationality Parameters,” ms., Harvard University.
[참고] 강명윤(1992).
- 휘트먼[Whitman, J.] · 한[Hahn, S.] (1988), “Korean Morphological Passive/Causatives,” 백웅진 편(1988).

■Abstract

Retrospect and Prospect of Reseaches of the Linguistics in Korea

Ahn Pyong-Hi, Im Hong-Pin & Kwon, Jae-i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righ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es in Korean morphology and syntax, through a critical examination and appraisal of past and current researches in these areas. Chapter 2 deals with Korean morphology while chapter 3 concentrated on problems in Korean syntax. The main poin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1) Researches on Korean morphology

With regard to areas of investigation, it was pointed out that a balanced research of both morphology and syntax is necessary. The tendency for the research concentrated in one area to neglect the research of another area was pointed out. In particular, the predominance of syntactic research over morphological research needs to be remedied. Within morphology, the need for a balanced perspective also exists. Current research is concentrated on word-formation to the exclusion of detailed studies on inflection. The imbalance needs to be remedied as well.

The following points were made with regard to research methodology in Korean morphological studies. First, it goes without saying the current research builds on and improves the results of past research. Therefore, just as it is important for current research to be creative and innovative, it needs to be founded solidly on past achievements.

Secondly, modern linguistics is based on rationalism to the almost total exclusion of empiricism. However, the time has come for a research methodology that synthesizes these two trends. Detailed and logical descriptions of the linguistic phenomena of Korean based on careful empirical observations are called for.

Thirdly, current research emphasizes the autonomy of sub-disciplines of linguistics, with the result that each sub-discipline has pursued research according to its own methods and philosophies. It is time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language to take the place of such fragmented methodology.

Fourthly, the undue emphasis on synchronic studies must be altered. Proper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diachronic aspects of language.

(2) Researches on Korean syntax

As is well known, it is not surprising that syntactic studies in Korea during last fifty years or so have followed the guidelines of structural and/or generative linguistics. Sometimes we have seen great achievements attained by applying the related methodology to the raw materials in the language. However, it may well be pointed out that they have been misguided by some wrong assumptions about the real nature of language and the task of syntactic theory. Regretfully, the theory-oriented approaches to syntax often have shown the tendency to overlook the importance of the descrip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Here we focused our attention on two insufficiencies which are explicitly or implicitly involved in syntactic theories and practices. One is related to the destruction of the lexical item which may well be called "Lexical Destruction," the other is related to the wrong categorization of syntactic constituents.

One example of Lexical Destruction (=LD) is found in Chomsky (1994). In that work, English demonstrative pronoun *this* and *that* is decomposed into *th-* and *-is* or *-at*, which is nothing but a wild LD. This move has the purpose to satisfy the Kayne's (1993) hypothesis of *Linear Correspondance Axiom* which relates linear ordering of syntactic constituents to c-command configuration. However, this kind

of destruction cannot be justified, simply because it is not the syntactic analysis. The generative semantic attempt to decompose a set of causative verbs into their semantic primitives would be a classical example of LD. LD could also be found in the attitude of treating causative or passive suffixes in Korean as an independent syntactic units. Presumably, LD might be seen to have the motive to handle the linguistic data as one pleases. It is clear that in the course of LD, the lexical items are apt to lose their inherent lexical properties and idiosyncrasies. In this connection, it is noted that in Korean syntax the lexical-formative *ani-* and *-hata* involved in the negative predicate *anihata* should not be treated separately. It is because that the *-ci* ending which appears with the preceding verbal stem in the long form neg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can be explained to be needed by only the existence of the whole lexical item *anihata*.

On the other hand, wrong categorizations of syntactic constituents are another source of deficiencies in current syntactic theories and in practical analyses. One example is the DP (=Determiner Phrase) category as is set up in Abney (1987) or Chomsky (1995), which replaces the old NP category. DP category cannot be borne out in the light of Case facts. Consider the case of possessive DP which receives nominative case from somewhere. Since the head of possessive DP has already genitive case, there can never be added another case to the existing genitive head. Number facts show similar difficulties. Case fact is more crucial than this. The category of "AGR(Agreement)" as is not rarely postulated in GB (or Principles and Parameters) approaches to Korean syntax is another example of wrong categorization. The honorific suffix *-si-* in Korean is claimed to fall under that category. However, the suffix *-si-* cannot be identified as the element to be used to honor the person(s) who appear(s) in the subject position. The function of the suffix *-si-* is roughly identified as the element to be used to honor the major Experiencer. Another example of wrong categorization is the so-called "predicate clause" as is often set up in the Korean syntax, which indicates the construction "second subject plus predicate" in the so-called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Since the term "predicate" is familiar to us, it is easy to believe that category real or at least not implausible. But there can never be such a category. The structure of

"predicate clause" is nothing but a sentence structure, wrongly adapted to clausal structure.

Chomsky (1994) wants to remove syntactic categories and bar-levels from syntactic configuration. Although they might be of little use in *generative* syntax, it cannot be denied that they are indispensable tools to describe the syntactic relations with.